

한국의
경제 · 정치 · 안보
쟁점에 관한
해외 여론주도층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KWR International
Keith W. Rabin
김 응 진

이 연구보고서는 국회의발전연구회가
2004년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책연구개발과제를 KWR International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한 것임 .

국 회 운 영 위 원 회

한국의
경제 · 정치 · 안보
쟁점에 관한
해외 여론주도층의
인식에 대한 조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KWR International
Keith W. Rabin
김 응 진

이 연구보고서는 국회의발전연구회가
2004년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책연구개발과제를 KWR International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한 것임 .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I .	한국관련 쟁점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 · 정치 · 안보	1
	1. 조사개요	1		
	2. 구체적 결론	3		
	3. 일반적 결론	5		
	4. 권고사항	7		
	5. 분석결과	10		
II .	해외 여론 설문조사 내용	주도층의 23	인식에 대한	
	1. 조사방법	23		
	2. 설문대상자의 구성		24	
	3. 설문조사의 결과	26		
III .	영문원본	73		
	○ Survey on Korea and Related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73		
	○ Foreign Opinion Leader Perceptions: Comparative Impressions Concerning Korea and Related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97		
IV .	부록 : 주관식 분석		설문조사에 대한	
	147			

경제 · 정치 · 안보 관한 조사연구

한 국 판 련 쟁점에

1. 조사개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the Korean Legislative Studies Institute, 이하 KLSI)는 한국의 경제, 정치, 안보 쟁점에 대한 해외 여론주도층의 인식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KWR International, Inc. (이하 KWR) K.W. Rabin 대표와 김응진 선임고문 주도로 프로젝트팀에게 이하 연구조사작업을 의뢰했다. 본 보고서는 양적·질적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한국이 해외 구매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관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와 다른 공적 기관, 사적 기관들의 이해를 돕도록 기획되었다.

설문은 19개 주제에 따라 38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1-10의 급간을 갖는 순위 응답 질문과 자유응답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8,000 명에 달하는 조사 대상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주 대상은 기업, 정부관료, 학계, 비영리 기관, 금융기관,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며, 미국이나 해외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이 주요 타겟이었다. 설문은 2004년 4월 3일 배포되었으며, 4월 14일까지 166명이 응답하였다. 표본수가 충분히 크지는 않지만 본 조사자료는 여론주도층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을 제공하며, 한국의회발전연구회와 다른 한국 관련 기관들이 제출된 데이터로부터 많은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특화된 응답자 선별과정, 설문문항의 세부적 특성, 그리고 설문 대상자의 구성을 통해 볼 때, 본 조사는 미국이나 해외 여론의 보편적 인식이라기보다는 특정 시점 설문에 응한 선별된 여론주도층의 관점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각 문항별로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를

세인 있으나,
 이상은 강한 긍정, 6-7은 긍정, 5.5-6은 약한
 긍정으로 간주하였다. 5-5.5는 약한 긍정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응답자의 기본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중립으로
 해석했다. 같은 이유로 5이하의 값은
 부정으로 해석하였다.
 편차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KWR의 관점에서 보면 편차
 1.9이하 값은 매우 강한 일관된 의견, 1.9-2.1은
 중간 정도의 편차, 2.1 이상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분열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간주했다.
 또한 각 대주제 하의 세부문항 내
 응답편차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한국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설문 문항보다 강한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 반미주의는 6.33의
 평균값을 얻었는데, 이 값은 다른 문항들과
 비교할 때 높은 값이지만 동 문항 내 다른
 응답들 중에는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여
 정부의 정책우선순위 가운데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설문은 기본적으로 서면 조사로
 진행되었지만,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응할
 시간이 없는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
 추가적인 전화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솔직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응답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직업과 지역으로만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직업과 지역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업 : 학자 (12%), 애널리스트 (5%), 변호사 (8%),
 컨설턴트 ((12%), 엔지니어 (1%), 경제학자 (3%),
 경영간부 (15%), 금융전문가 (4%),
 펀드매니저와 투자자 (9%), 정부관료 (4%),
 미디어 (8%), 비영리 기구 (4%), 기술관료 (7%),
 기타 (2%).
 지역 : 미국 북동부 /대서양 중부지역 (43%),
 미국 남동부 지역 (9%), 미국 중서부 지역 (7%),
 미국 중남부 지역 (1%), 미국 로키산맥주

시력 (27%), 미국 지역 (7%), 한국 (4%), 대륙간 연안 /남서부 (5%), 동남 /남아시아 지역 (5%), 북아시아지역 (5%), 기타 (8%).
 추가적인 구두 인터뷰는 이후에도 진행되었지만, 모든 서면응답은 한국의 4월 15일 총선 이전에 수거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일부 응답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의 다른 관련 기관들에게 해외 여론 주도층이 중요 이슈들에 대해 과연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2. 구체적 결론

- 응답자의 긍정적인 정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한국을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시장과 같은 매력적인 투자지로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응답자들은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별적 강점 (교육수준, 수출기반 연구개발 등)에 대해 그들이 부여한 가치에 비해 뒤쳐져 있다. 많은 응답자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2 + 2 = 3인 상황이다.
- 응답자들은 한국의 기업 환경을 칭찬한다. 하지만 두 가지 국내적 요인 (사회적 분극화와 정치안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게 평가하는 반면에 외적 요인 (중국의 등장과 미국 경제상황)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한국의 미래가 한국이 제어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며, 나아가 본 조사에서 표현된 한국에 대한 회의적 평가의 일단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 응답자들은 직접 투자 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약간 더 선호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통치 이슈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그 차이는 작은

- 잇느노 보인나 . 응답자들은 북한과의 긴장을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대립적 방식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 응답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냈지만 정치안정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 또한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상정된 상황에 관해서는 다소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이것은 근저에 깔린 불신을 의미한다 . 예컨대 두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한국의 정치는 논쟁이라기 보다는 전투와 같다”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속 가능한 변화를 야기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집권할 수 없다”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역동적인 허브 (dynamic hub)” 로 만들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확신이 없었다 . 다수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 응답자들은 한국 기업이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인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 많은 응답이 개인적 경험이나 한국과의 친숙도에 기반하고 있었다 .
- 응답자들 중 몇 사람은 더 많은 혁신 브랜드 개발 , 기업구조와 기업문화의 변화를 지적했지만 , 대부분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
- 응답자들은 한국의 강한 노동 윤리 , 제조능력 , 시장속도 , 단일국민성과 함께 교육에 대한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 반면 응답자들은 부패 , 정실주의 노동문제 , 북한과의 긴장 , 고비용 구조 인종적 배타성 ,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함께 정치안정의 결여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
- 응답자들은 한국이 보다 심화된 경제개혁과 기업구조개혁이 필요하며 가격경쟁력 위주의 제조업을 뛰어넘어야

아고 퍼두두사에 모나 너 개강씩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개방성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참여를 촉진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제후관계와 협력구조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

3. 일반적 결론

- 응답자들은 과거 수년 간 한국 기업과 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홍보부재의 결과로 자신의 과거 경험, 간헐적인 미디어와 학술회의에서 받은 느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근래 한국에서 벌어진 많은 성과와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외 여론 주도층의 한국에 대한 낯은 인식은 해외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고충으로 결과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지결핍' (perception deficit) 으로 처음 개념화 했던 KWR의 1996년 연구 이후 수 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관과 기업들은 해외 경제 주체들과의 상호 협력과 대화창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시작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한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교류하는데 필요한 엄밀한 계획, 사후점검, 지원, 정보교환, 연속성 없이, 간헐적 출판이나 뉴욕·워싱턴·기타 핵심지역에 대한 지도층의 방문 등과 같은 개별적 행위에 그쳤다.
- 중국의 성장과 다른 저 비용 경쟁자들 회복기미가 보이는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한국은 허브 개념의 개발을 포함한 지식 중심과 서비스 지향의 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가속화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주도층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한국의 잠재력과 능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나쁜 소식은
 그들이 한국을 매우 복잡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선호하는지 등에 대해 불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공기업이라면, 많은 주주들은
 기업가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산을
 팔아치우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 한국인들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근본기술과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자와 경영진들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국내의
 선입견과 문화적 장벽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럴 때만이 현재 국가적 수준과
 기업수준에서 달성하고 있는 진보와
 한국의 잠재력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제휴
 투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그렇지 않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탈을
 평가절하할 것이고, 나아가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실적이나 유망함을 갖지
 않더라도 보다 이해하기 쉽고 거래하기
 쉬운 대안적 투자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과거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제조업에서 벗어나 지식과
 서비스 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장애요인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4. 권고사항

한국은 주변국이나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신의 힘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는 한국 첨단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삼성과 LG의 초박막
 영상 표시장치 (FPD), 휴대폰, 다른 전자제품의

TT싱 , 는 건구에 , 비아면 비극 내
 신차 구매자들은 현대차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브랜드보다도 높은 질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게다가 , 현존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 ,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분야에 적용해내는데 지구상의 가장 중심적
 지위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은 , 미래의
 경제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또한 비록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활력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 미래에 지속될
 역동성과 힘을 가진 하나의 모델로서
 성공적인 세대변화를 이끌어갈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상대방의 성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고
 있다 .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 예컨대 , 현 시점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하이베타 (high-beta)” 유형의
 전략은 한국을 거대한 국제적 흐름과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는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만든다 . 이러한 접근방법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한 투자분석가의
 언급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한국은
 미국의 금리인상의 가능성과 중국 정부의
 긴축 경제 노력에 영향 받아 4월 29일까지
 2.93%의 가격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
 한국이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 중심
 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면 , 국내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필요가 있다 .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체제 하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 전지구적 차원의
 자원을 끌어들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국기업을 유연화할 수 있는 국가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한국은
 대다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를

개강하고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와 규제구조의 향상 ,
 기업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기업여건이 어려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 그들은 한국 기업들을
 선호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 .
 한국의 오랜 굴곡진 역사를 보면 , 이러한
 현상의 문화적 원인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 그럼에도
 완성제품의 구매자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 변화된 비즈니스
 스타일이 요구되며 가치와 선호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인들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 ,
 네트워크 , 상호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한국은 보다
 세계화된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 . 이것은
 지방 , 지역 , 국내 경쟁자를 뛰어넘는 것과 ,
 해외자본의 참여를 막고 한국인들이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 중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핵심과제를 망각하도록 하는
 구래의 인식 기반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은 연속성 , 수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수준의 투자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경제적 경쟁력과 실현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구조적이며 정책적인
 수단에 더하여 ,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한국기업과 국제투자자 , 기업
 경영진 , 그리고 유관 기관들 사이에 연계
 발전시키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국가적 수준의 투자관계”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
 이것은 투자은행이 후원한 로드쇼 (road
 show)나 전세계에 존재하는 한국 관련 기구에
 의한 공표 , 출판 , 조직 등을 통해서 , 아니면
 한국 정부관료와 기업 임원들이 주요 해외

시영일 강준범은노씨 건근 가시글 내세아근
 것이 아니라 극대화함으로써 보 완
 발전시키는 것이다 . 한국 관련 기관과의
 공식적·비공식적 제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앙 “정보교환소 (Information clearing house)” 의
 건설과 광범위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창출함으로써 , 미디어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한국과
 기존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증가로 분명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 , 그리고 국제적 지명도
 향상을 노리는 한국 기관들에게 모두
 지구적 자원 을 제공함으로써 , 현재
 진행되는 노력으로부터 실질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고 더 나은 투자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다 .

5. 분석결과

첫 번째 설문문항은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 . (1은 한국에 대한
 지식 없음 , 10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응답한 166명 중 평균값은 6.25다 . 한국 관련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
 이 평균치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을 요하는 균형
 잡힌 집단이라는 것이다 . 한국 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에 확신을 가질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가졌다기보다는 ,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 내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와 정보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다 .

두 번째 설문조항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투자 잠재력에 대한 판단이다 . (1은 매우
 낮음 , 10은 매우 높음). 중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7.52). 이러한 낙관주의는
 아시아 무역 대표부의 언급해서도 불 수
 있다 . “중국은 지금까지 가장 유망한
 시장이며 앞으로도 그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 미국은 7.32로 두 번째에
 위치하였으며 , 동남 아시아가 6.53, 한국은
 6.39, 일본은 6.11로 그 뒤를 이었다 . 위의

나더블클 세커만 나는 내인 들게 내애시
 물었을 때 , 응답자들은 브라질 , 러시아 , 호주 ,
 싱가포르와 그 외의 몇몇 나라들을
 지적하였다 . 그러나 인도는 다른 대안군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았고 , 만약 앞의
 문항군처럼 점수를 줄 수 있었다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 한국의 지위는
 조건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이 자신의 경쟁력을
 정의하고 교류하는데 직면한 실질적 도전을
 이해할 수 있다 . 조건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은 부차적 지위로 전략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이런 정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한 펀드매니저의 지적에 근간을
 이룬다 . “ (한국은)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 우리는 더 나쁜 것도 보았다 . 그러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의 그들 안에 있었다 . ”
 세 번째 설문조항은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매력간의
 차별성이다 . (1은 매력적이지 않음 , 10은 매우
 매력적임) . 응답자들은 포트폴리오
 투자 (5.87)를 직접투자 (5.82)보다 약간
 선호하였다 . 그러나 편차값을 감안한다면 ,
 이러한 차이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부정적 응답은 직접투자 23명 ,
 포트폴리오 18명 (1-3)(직접투자에 대한 27%
 비선호)이었고 , 긍정적 응답은 직접투자
 30명 , 포트폴리오 36명 (8-10)(포트폴리오를 20%
 더 선호)으로 , 투자자들은 직접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잠재력에 좀 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응답자들은 이러한 관점의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 첫째 , 정치 불안정과
 북한과의 잠재적인 긴장관계 등에 대처하여
 긍정적인 경제의 모멘텀을 한국이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진입과 회수가 가능한 유연한 투자를
 선호하게 하였다 . 한 회계사는
 “외국인들은 그들의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팔 수 있다 . 반면
 직접 투자의 경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너나 . 그리고 . 인 갑 아 자 고 , 인 개 인
 투자자도 . 비슷한 . 관점에서 ,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직접투자자는 자본 탈출의
 어려움에 더하여 현재 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액은 너무 높다 . 따라서 나는
 포트폴리오 투자자를 더 선호한다 .”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 . 한 투자 분석가는 직접투자자의 매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강한
 자본유입과 해외자본 , 기업의 투자증가를
 볼 때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자의 매력은 ,”
 분명하다 . 특히 자동차와 은행부문에
 하지만 한국에서의 직접투자자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 한 헤지펀드
 분석가에 의하면 , “한국이 세계경제체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지명도가
 높기는 하지만 ,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인들의 다루기 힘든
 성향을 고려한다면 , FDI는 여전히 피곤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 보다 매력적인 경제
 하부구조를 가진 중국이나 인도에서의
 투자가 더욱 쉽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언급들이 한국의 이점이 있고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관점은
 다음의 투자지 선정 전문가 (Site Location Specialist)
 의 언급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 “강력한
 노조의 존재나 증가하는 반미주의적 성향을
 고려할 때 , 직접투자자로서의 한국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 그러나 한국은
 상당한 크기의 시장과 견실한 하부구조 ,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
 네 번째 설문문항은 직접 투자 를
 유인하거나 억제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영역의 이점을 물었다 . (1은 강한 부정적
 영향 , 10은 강한 긍정적 영향) . 교육이 7.54로
 1순위로 꼽혔고 매우 적은 편차 를
 보여준다 (1.64) . 수출정책 (export platform)(6.69) , R&D
 (6.45) , 그리고 국내 시장 (6.23)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긍정적이긴 하지만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요인들은 지역 허브 역할 (regional
 hub)(5.94) , 수익 -비용 구조 (5.9) , 비즈니스의

앞의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문문항과 비교하여 이번 순위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구체적 요인에 매겨진
 비교적 높은 점수와 앞 설문에서 대부분
 상당히 낮게 나온 한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간의 간극이다. 이러한 인식적 간극은 한
 헤지펀드 분석가의 다음 언급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매우 높은 교육수준과 좋은
 직업윤리, 국가적 하부구조가 그것이다.
 중국이나 인도와는 달리 만연한 정전사태도
 없다. 한국의 기업실적은 훨씬 나으며
 경제도 더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이
 해외자본과 기업에게 실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경제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원하지
 않으며 그렇게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국인들은 미국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훨씬 덜 개방적이며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 대부분 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다섯번째 설문조항은 중 단 기 적 인
 관점에서 다음의 변인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관한 것이다. (1은 매우
 부정적, 10은 매우 긍정적). 미국경제 상황은
 6.29로 1위를 차지하였다 (편차는 1.7로 매우
 작다). 2위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의
 기업환경이 차지하였다. 두 변수는 같이 6.25
 포인트를 얻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보다 큰 2.37의 편차, 한국의 기업환경은
 1.87의 편차를 보였다. 6.08의 경제규제
 개혁 (2.06 편차), 6.0의 소비자의
 구매력 /부채 (1.9 편차), 5.73의 정치안정 (2.35
 편차), 5.5의 정부 리더십 (2.3 편차), 5.4의 사회
 분열 (2.0 편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남북 긴장관계만이 비록 2.59의 매우 심한
 편차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부정적인 4.95을
 얻었다.

이 중요한 대한 소비자의 상대적인 기업환경과 가지 부정적인 되고 한계라 시장의 관료는 한국 않는다 생각하지 힘으로 그러리라 이에 상황 순위를 소지가 발전을 의심의 실질적 부정적 것이라고 여섯번째 우선 낮음 설문조항에서 대북정책이 편차는 이것은 정책 인정함과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것이다 7.1의 노동문제 마지막으로 이었다

논쟁점 은 남북관계의 염려와 구매력 /부채 낙관주의를 소비자의 구매력 /부채 요인은 , 한국 언론보도와 심각한 한국에서 성장의 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와 잠재적 유인에 대해 , 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나는 한국 시장의 크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 시장의 크기가 발전을 저해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 프랑스가 혼자 힘으로 존속할 수 있다면 , 한국도 충분히 확신한다 . ”

덧붙여 , 중국의 경제성장과 미국 경제 상황 같은 외부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가 된다 . 한국이 이들 시장의 긍정적인 발전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 결과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의 부정적 경향에 의해 한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

여섯번째 설문조항은 한국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 관한 평가다 . (1은 우선순위가 낮음 , 10은 우선 순위가 높음) . 앞의 설문조항에서 나타난 관점의 연장선에서 대북정책이 7.73을 차지하였다 . 그러나 편차는 매우 낮은 1.86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응답자들이 북한이 매우 중요한 정책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함과 동시에 잠재적 긴장관계가 중단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 7.53의 정치 안정 , 7.14의 기업 개혁 , 7.1의 FDI 증대 , 7.08의 정부개혁 , 6.95의 노동문제 , 6.48의 사회 문제 , 그리고 마지막으로 6.33의 반미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

것은 응답자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거대한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
 언급한 반면, 국내 잡지의 한 기자는
 “정부는 여전히 국내 시장의 작동을
 왜곡한다. 모든 사람들이 조사 받고
 있다.” 고 말하였다. 한 아시아 무역 대표부
 인사는 “정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5대 재벌 기업간의
 관계는 범죄적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곱번째 설문조항은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의 안보 위협인가를
 물었다. (1은 대수롭지 않음, 10은 매우
 심각함). 응답자들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위협정도를 6.83으로 표현하였으며, 2.18의
 편차를 보였다. 반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정도는 6.01로 표현했으며, 2.41의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여 동북아
 안보위협정도보다 훨씬 낮게 바라보았다.

한국과 친밀한 응답자들은 이러한 우려가
 명백한 것인지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국내 비즈니스 잡지의 한 기자는
 “인접성은 북한을 굉장한 위협요소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은 오랜
 기간 존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현재 그것에 대해 훨씬 우려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른 언론인의 언급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국이 잘 해 나가라.
 솔직히 한국의 간헐적 행위로 보건대, 나는
 북한문제를 한국이 전적으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 기술 투자자는 앞의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북한은 비중이 큰
 신문기사감이며, 그래서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는 면이 있다.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능한가 -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아시안 / 개입 중, 무엇이 될 수 있는나를 물었다
 이슈라는 점은이다 .
 여덟번째 설문조항은 대결 / 봉쇄 또는
 외교 / 개입 중, 무엇이 될 수 있는나를 물었다 .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나를 물었다 .
 (1은 대결 / 봉쇄에 대한 강력한 선호 , 10은
 외교 / 개입에 대한 강력한 선호) . 여기서의
 의견은 2.6의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확연히
 구분되었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7.43의 평균으로 외교적 해결책을
 명시적으로 선호하였다 . 그리고 응답자 162
 명 중 51 명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가장
 강한 선호인 10을 선택하였다 .
 의견의 대립은 응답자들의 언급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 예컨대 한 교수는
 “마오가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총신만을 이해한다 .” 고 한 반면 , 거대
 투자은행의 세계 전략가는 “다자주의
 외교 , 정치경제적 압력이 무력의
 사용보다는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이라크를 보라” 고 말한다 . 또한 문제의 한
 측면에는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놓여
 있다 . 예를 들어 , 국내 경제지의 한 기사는
 “한국에 대한 단상 :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결정해라 . 그리고 미국에 관한 한
 당신들이 미국에 우호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 는 극단적인
 언급을 한 반면 , 한 보도기관의 간부는 현재
 미 행정부가 성공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는 확신을 결여한 상태에서 “내가
 열쇠를 쥐고 있으면 좋겠다 . 내가
 워싱턴에서 다른 외교정책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다면 훨씬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적어도 수사적인 수준에서는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전직 미정부
 관료였던 워싱턴의 한 금융 컨설턴트는
 “이분법은 비현실적이다 . 해결 방안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개입적 접근 내에서
 일정 정도의 대결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하였다 .
 아홉번째 설문 문항은 현재의 정치발전과

금년 인접세반포의 경제적 파장이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물었다. (1은 불신의 증대, 10은
 보다 확신을 증가시킴). 흥미롭게도, 앞에서
 보인 한국 정치안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평균 5.2, 1.74의 적은
 편차를 보임으로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설문예 응한 143 명의 응답자 중 47 명은
 중립적인 5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20 명은 4,
 그리고 다른 20 명은 6을 선택하였다.
 몇몇 응답자들은 한국의 정치안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한 헤지펀드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전혀 기대를 벗어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한국의 정치계급들은
 국제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구
 정치계급의 예상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국
 투자자와 외국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과제에 대한 과도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 미행정부 관료의 시각에 동의하였다.
 “나는 한국의 탄핵 에피소드에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원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항에서 보여준
 우려와 본 문항에서의 중립적 태도 간의
 이중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한
 국내경제지 기자의 지적을 들 수 있다.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클린턴의
 화이트워터 에피소드와 같이 정파적인
 행위로 보인다. 반면, 그 근처에 흐르는
 불안정성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상황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그것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전투에
 가까웠다.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없었나
 열번째 설문 조항은 앞으로의 한미관계에
 대한 평가다. (1은 관계가 매우 약해질 것 ,
 10은 더욱 강화될 것). 표면상으로는 5.69의
 평균과 2.03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의견이 표출되었으나 , 2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각각 4와 7을 (161 명의
 응답자 중 30 명과 31 명)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미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 ,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미관계에 비중을 두는 미 행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요 투자
 은행의 국제경제 전략가의 언급과 “한국은
 점점 미국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투자지 선정 전문가의 언급은
 앞의 상반된 견해 차이를 대변해 준다 . 한
 워싱턴의 분석가는 미국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했다 .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한다면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텐데 .”
 반면 , 중서부 지방의 한 경제학자는 다른
 시각을 드러내었다 . “비호전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은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다른 많은 전통적인 우방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어리석게도 한국의 반미선동주의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있지만 ,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 전직 미 행정부
 관료였던 한 사람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
 “한미관계는 약화될 것이다 .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우리 몫을 다 했으며 ,
 우리가 그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는
 미국보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 그러하기에 군사 안보적인
 요인이 아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과 한국 모두 승리 하였으며 ,
 미국인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전쟁 당시
 미국인들에게 빛을 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역동적 허브 (dynamic hub)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다. (1은 실현
 가능하지 않음, 10은 실현 가능함).
 응답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에 치우치면서 2.08의 편차로 5.45을
 기록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중립의
 있다고 할 수 있다.
 몇몇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피력하였다. 아시아에 있는 한 언론인은
 “동북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존재는 한국이 허브 (hub)로의
 발달을 용이하게 한다. 아마도 남북
 그러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한 기술 투자자도 비슷한
 “한국은 북아시아 시장 진입에 성공하고
 있으며, 북미의 여러 기업들도 이들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여러 종류의 우려도 표명되었다. 한
 기술 컨설턴트는 이러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다이내믹 허브 (dynamic hub)
 개념은 허상이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시도를 해왔다. 그들에게는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행자들은
 중국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한국이나 일본을
 경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일본이 아닌 한국에 본사를 건립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전략을 추동해 낼 만한
 어떠한 국제적 비즈니스의 전통도
 부재하다.” 어느 기업 임원은 안보문제를
 지적한다. “허브 (hub)는 안전 지대여야
 하는데, 한반도는 남북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언어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 두번째 설문 문항은 한국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갖는가를 물었다. (1은 매우 매력적이지 않음,
 10은 매우 매력적임). 설문 결과는 2.02의
 편차로 5.74의 평균을 보여 주었다.
 응답자들의 분포는 근소하게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 안미환에게 내린 표의 문항과 같이 M 스타일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중립적이거나, 근소하게 부정적 (151 명의 응답자 중 53 명이 4 또는 5를 선택함), 또는 강한 긍정 (151 명의 응답자 중 54 명이 7 또는 8을 선택함) 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강한 긍정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우려의 시각이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강한 낙관주의는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환상적인 경험을 했다” 라는 어느 의료 컨설턴트의 언급과 “정치 영역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라는 특허 고문의 답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 아시아 거주 언론인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동 석유에 대한 초기 투자에서부터 제너럴 모터스와 대우의 트러블 등,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언제나 파열음을 낳아왔다.” 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기업 법률자문을 포함한 몇몇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의 부족은 심각하다.” 포춘 50대 기업의 고위 경제인은 “문제는 상호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목적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 전 미행정부 관료는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는 시간문제라고 믿고 있었다. “관계 형성은 서로간의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다. 편안한 관계의 낮은 네트워크로 인식되는 재벌의 존재는 우려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 기업가들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제휴관계는 필수적이고 지역 기업들은 열의에 넘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제휴관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 문화적 , 인식적 영내를 계속어나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 반면 한
 기업간부는 문화적 장벽을 지적했다 .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 문화적 이슈는 분명 극복해야 될
 문제이다 . 시간이 지나면 해결 가능한가 -
 확신할 수 없다 . 포용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감각에 필요한 기업정신을 채택하는 것과
 마음 착한 한국인이 되는 것과의 갈등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 한
 투자은행의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현하였다 . “현재의 구조와 문화는
 태평양 이외의 지역과 협력하는 데에
 어려움을 부가하고 있다 .”
 여러 응답자들은 기업간의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예를 들어 , 한
 분석가는 “문제는 개별 기업이다 . 몇몇은
 좋은 파트너지만 , 다른 몇몇은 좋은
 파트너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어느
 경제학 교수는 비슷한 취지로 “삼성과
 같은 기업은 환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 그들은 이러한 제휴관계의 강고한
 전통이 부재하다 .”고 지적한다 .
 여기에 덧붙여 ,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집단과 서면이나
 구두로 코멘트를 하지 않는 집단들
 근처에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한국에 정통한 어느 마케팅 전문가는
 “나의 모든 경험은 봉인되어 있던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협상하려는 시도와
 관련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 한국
 상황에 그리 밝지 않은 한 경제학자는
 “특히 외국인 파트너의 경우에 있어 ,
 그들이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많다는
 루머가 한국에는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
 워싱턴의 한 컨설턴트는 보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일본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는 경우 ,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휴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 당신들은 여전히 파트너를
 가지게 된다 . 나의 과문일 수도 있지만 ,
 한국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그들은 그런

이야기할 끝났다 아시잖습니까 .
 마지막으로 어느 회계사에게 한국인들이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외국인들과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 그는 , “나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 그 때 내 부서의 모든 사람이
 직장 상사와 똑 같은 지역 출신이었다 . 내가
 왜 다른 지역 출신을 고용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 그들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 한국이 지역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들과 제휴관계를 형성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 즉 , 한국인들에게
 있어 다른 지역 출신보다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
 열세번째 설문 문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한국 제품을 5년 전의 것과
 비교평가하는 것이다 . (1은 가치가 더
 떨어졌다 , 10은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 .
 매우 작은 1.51 편차에 7.65 평균을 보였다 .
 이것은 이번 조사연구 중 가장 명확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 159 명의 응답자중
 불과 여섯 명만이 5 이하로 답변하였으며 ,
 90% 이상이 6 이상 , 그리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8과 10 사이를 선택하였다 .
 미국 국내 경제지의 한 기사는 “나는 한국
 제품을 매우 좋아한다 .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매한다 . Made in Korea는 제품의 질적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의류 , 종이 제품 , 가구 , 그 외의
 미국으로 수출되는 광범위한 제품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다른 대부분 나라의
 수출품보다도 모두 품질이 뛰어나다” 고
 말하였다 . 어느 기업 변호사도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였다 . “한국의 자동차 , 무선
 전화 , 그리고 전자제품의 명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 이러한 시각은 국내
 경제지의 한 기자의 언급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한국은 단순한 규격화 된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하이테크와
 서비스 중심의 고 부가가치 제품을

세상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인식에도 여전히
 이러한 전체적인 시각은 남아있다. 투자자에게
 경계하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한 경제학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5년 전에 한국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러므로 개선, 개량의 여지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고임금의 구조를 볼 때
 그러하다.” 한 잡지 출판인은 한국 기업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삼성 제품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한국
 제품도 시장에서 인지도가 크지 못하다.”
 한 기술 컨설턴트는 한국 기업의
 문제점들을 제후보다는 독자적인 길을
 선호하는 성향의 탓으로 돌린다. “한국은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한다. 확실히 한국
 자동차 기업은 강하다. 전자 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삼성이 이제까지 선도해 왔다.
 노동문제를 제외하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독자적인 길을
 선호하는 데에 있다. 미국 기업들이
 소규모이며 뛰어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던 일본은 15년 전에 그러한
 시기를 통과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수직적인 제후관계를 추구하였고, 자신의
 집단으로부터 자양분의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자금 자족적인 체제였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모든 기술 영역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들이 필요한 최선의
 것을 발전시켜,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대부분 거대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문제 중의 하나는
 중간층이 투명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외국인들과
 제휴할 것인가 - 이러한 부분들이
 불명료하기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한국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
 비즈니스는 보다 폭 넓은 협력과 제휴를

그러나
 열 네번째 설문 조항은 자유응답방식이고
 현재 한국경제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90명의 응답자들은 한국의 고학력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강조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또한 한국인들의 도전 의식
 강한 노동 윤리, 제품 생산 능력, 시장속도
 국민적 단일성 등을 지적하였다.
 열 다섯번째 설문 문항 또한 자유응답이며
 한국 경제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94명의 응답자가 정치 불안정, 부패
 정실주의, 노동문제, 북한문제, 인종적
 배타성, 고비용 구조, 재벌의 지배구조 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인 열 여섯번째 설문 조항도
 자유응답이며 한국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물을
 물었는데, 86명의 응답자들이 답변하였다.
 경제와 기업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많은 응답자들은 가격경쟁력 중심의
 제품생산을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에 보다
 개방적이어야 함을 언급했다. 더 많은 개방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세계화된 경제체제
 하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제 휴
 협력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역동적 허브 (dynamic hub)” 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II . 해외 여론 주도층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 한국의 경제 -정치 -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1. 조사방법

한국의 경제, 정치, 안보 이슈에 대한 해외 여론주도층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의회발전연구회와 International, Inc.(이하, KWR)는 다음과 같은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 배포된 설문지는 예비조사 후 작성되었다
- 설문은 기업, 정부관료, 학계, 그리고 미디어에 종사하는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설문 대상자는 아시아와 한국문제에 어느 정도 정통한 개인들로 국한시켰다
- 이것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차별적 개인에 대한 조사보다 심도 깊은 설명과 신속한 답변을 가능하게 하였다
- 설문지는 2004년 4월 3일 약 8,000 명에게 배포되었으며 4월 14일 수거되었다
- 총 응답자는 166명이었다
- 선별된 몇몇의 응답자들에게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몇 주간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 * 너무 늦게 도착해서 양적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추가응답이 있었고, 몇몇 시간상의 문제로 질문지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인터뷰를 통해 견해를 피력했다. 이 두 집단의 의견은 양적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터뷰 개요에 반영되었다

2. 설문대상자의 구성

■ 응답자들은 폭 넓은 여론주도층으로 구성되었다.

■ 응답자들은 주로 미 전역에 거주했고
 추가적으로 유럽과 아 시 아
 응답자들이 있었다 .

■ 폭 넓은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다방면에 종사하는 인물들로 설문
 대상자를 구성하였다 .

○ 166명의 응답자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기업계]	[정부 / 비영리
-미국 주요 자동차	단체]
산업 아시아지역	-국제무역 전문가
퇴임경영진	-전 외무부 장관
-포춘지 선정 50대 기업	-법률가
고위 간부	-포춘지 50대 기업
-벤처 기업 투자자	워싱턴 대표
-과학기술 기업 경영진	-해외 무역대표부
-헤지펀드 고위 간부	관리자
-기업 변호사	-로비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미국 외교관
	-시 정부 경제관료

[학 계]	[언 론]
-경제학 교수	-도쿄주재 통신원
-경영학 /정부학 교수	-주요 경영잡지
-정치학 교수	기자
-아시아 지역연구자	-전국지 기업담당
-직업교육 관리자	기자
-싱크탱크 분석가	-전국 경영잡지
-객원 연구자	편집진
-신용 분석가	-기술 전문 기자
-연구원	-온라인 뉴스

하지만 응답자들의 특수한 구성으로 볼 때 ,
이 조사가 미국 일반인들의 독립적
여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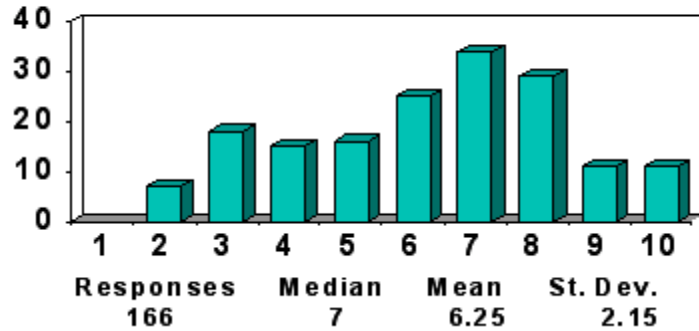
3. 설문조사의 결과

■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더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

설문에 응한 166 명 이외에 , 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모든 문항에 답변할 수
없는 대상자들도 참여하였다

한국에 대해 정통한 응답자일수록
극단적인 순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 다른 응답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반면 이들의 코멘트는 엄격한
편이었다 .

응답자 구성의 편향과 표본추출기법을
고려할 때 , 본 연구결과가 미국과 해외 여론
주도층 전체의 인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 한국과 아시아지역에
대해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각 부문
개인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유효한 지표로
이해되어야 한다 .
따라서 평균 , 중위수 , 표준편차와 함께
응답항목의 숫자도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



대부분의
대해
응답했다

상당한

응답자들은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한국에
있다고

〈설문 1〉

당신의 지식정도를
바
없음
있음
(1은 아는
가지고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10은
).
한국에
대한
주십시오
일반적인

상당한
문제에
불구하고
한국에
밝혔다
대중을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을
연구에서는

■ 한국에
상당하다고
"한미

편차가
대한
대한
반면
대상으로
5.7의
대상으로
7.1의
평균을

존재하고
전문가
상당한
KWR에
의해
1996년도에
평균
그리고
보였다

응답자들이
집단이
응답자들은
식견을
가지고
보다
1996년도에
그리고
한

한국
아님에도
자신들이
있다고
광범위한
수행된
선별된
2000년도

경험과
지식정도가

기업위원회에서

간구하시던 , 한국에 내에서는 글도 아는

바가 없다 .” (기술 관료)

“한국에 2년 거주한 적이 있고 30여년 동안

한국의 발전을 주시해 왔다 .” (건설관료)

“미수출입은행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 그 이후 한국에 대한

기사를 규칙적으로 읽고 있다 .” (워싱턴

컨설턴트)

“미국 무역 협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

한국에 근거를 두는 기업들과 25년 이상의

비즈니스 경험을 가지고 있다 .” (전국

무역협회 관리자)

“나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한국 역사를

연구했다 .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므로 “4”값을

주었다 . 그러나 아마도 나는 전형적인

미국인들보다는 한국을 더 잘 알 것이다 .” (Ivy

리그 대학 역사학자)

“근래에 한국에서 열린 IETF (인터넷

표준위원회)에 7일 정도 참여하였다 . 그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기에 그 당시에 본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 (위원회 위원)

“십수년 동안 한국의 경제 무역 정책을

주시해 왔다 .” (Fortune지 선정 50대 기업 고위

경영진)

“1987년 이후 나의 회사는 한국과 매우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데 매우 관심이 높다 .”

(의료기업 경영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 나의 전 직장은 한국

기업에 대략 5억 불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하였고 , 나는 재벌과 중소기업에 대해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 (개인별

투자자)

“1963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을 네다섯 차례

방문하였다 . 그 이후 일 년에 한번 정도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 한국 국내의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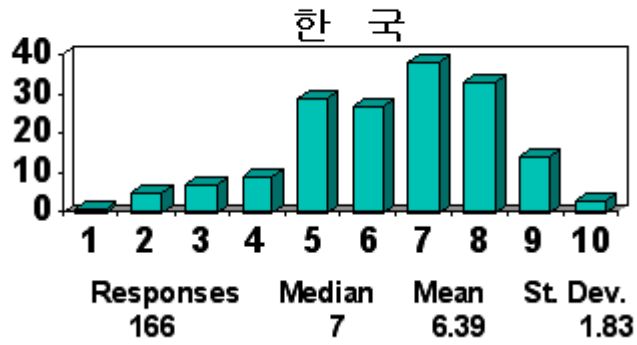
사건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 (주요 경제지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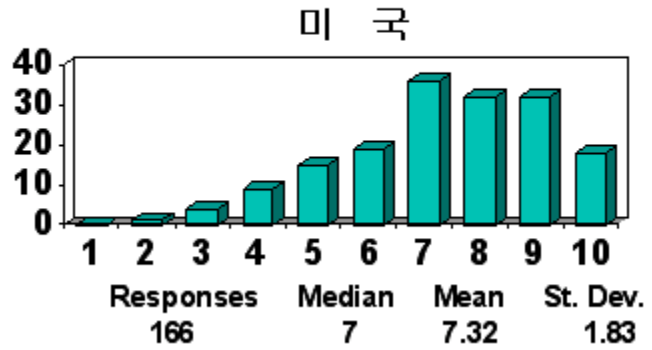
“나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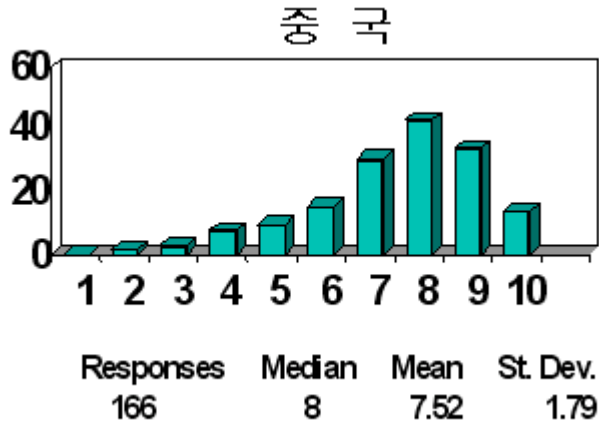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 (뉴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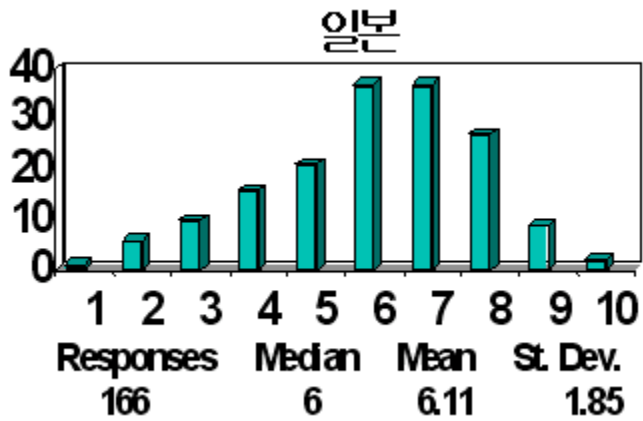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 응답자들은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신뢰하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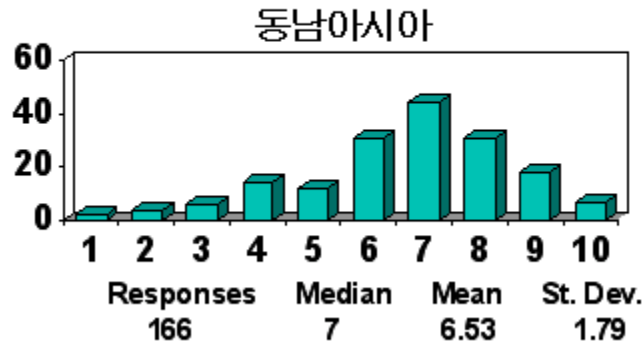




〈설문 2〉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를 매우 낮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10점 척도에서 평가해 주십시오. (1은 매우 낮음, 10은 매우 높음).

중간 정도의 편차로, 응답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투자 잠재력은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보다는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많은 응답자들이 인도,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중앙-동유럽, 그리고 호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앞으로의 몇 개월간이 한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몇 개월간 기다려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특히 법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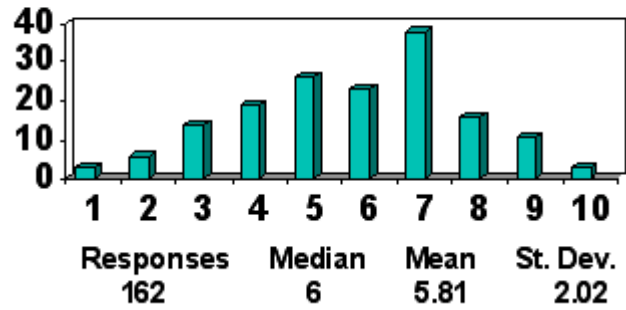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 통일 비용,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경제 원조 등을 제외한다면,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 기업연합 관리자)

“아시아 지역에는 경제의 위계질서가 있다. 그 최하위에 한국이 있으며 일본은 최상층에 있고 비교적 우월한 위치를

심하고 . 그러나 . 한국이 그렇게 평가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로 인해 일본과 중국이 한국보다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 한국이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안정의 이미지를 얻어야만 하는데 현재 탄핵움직임은 정치안정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투자를 중단시키고 있다 . 반면 중국은 저발전 국가이지만 투자선호에 있어서는 보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크고 유연한 시장과 잠재력에서 더 나은 평가를 얻고 있다 . [헤지펀드 분석가] "기술부문에서 한국은 여러 개의 시장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와 거래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한국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 . 왜냐하면 한국시장은 크기에 있어 일본보다 작고 성장잠재력에서는 중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은 훨씬 나쁘다 . 투자자들은 한국에 LG와 삼성 두 개의 기업만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며 그들과 거래할 필요가 없으면 한국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 반면 일본은 오랜 해외거래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의 언어와 거래방식을 이해하고 있다 . 하지만 삼성과 LG는 국제 기업들과 거래방식을 알기는 하지만 거대 복합기업이라는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 " [기술 컨설턴트] "향후 몇 년간 환율변동은 서구 선진국보다는 아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 " [투자회사 고위 간부] "중국은 아시아의 성장 , 무역 흐름 , 기술 이전 , 소비자 이윤 증대를 주도할 것이며 , 지정학적 혼란을 막아낼 것이다 .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문제들은 양안문제 , 북한 , FSU, 이슬람 근본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 [주요 투자은행 세계투자담당] "한국에 대한 투자가 일부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보다 쉽지는 않다 . 그리고 중국과 다른 국가들은 더 낮은 임금시장을 갖고 있다 . " [전국 경제지 통신문]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이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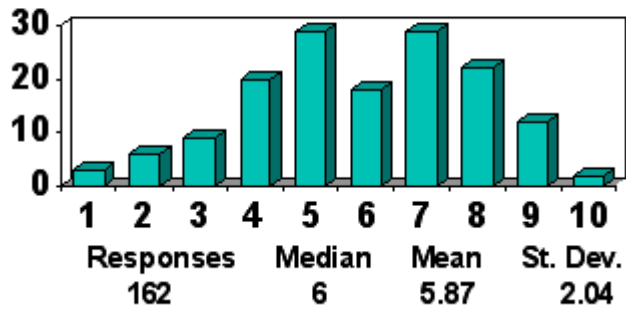
애저사근에 , 한국에 , 개성역할시가 , 해외투자에는 , 풀썩말하기
 때문에 , 한국에 대한 대한 해외투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 [컨설턴트 -자문 서비스]
 "나는 어리석은 대중융합주의라는 한국의
 오명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이런 특성은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휩쓸리고 다시
 북한의 배신을 걱정하는 혼란을 만든다 .
 또한 한국의 반미주의가 싫고 경직된
 포퓰리즘적인 노조와 타락한 재벌은 더
 싫다 . 하지만 한국제품은 질적으로
 우수하며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을 존중한다 . " [전국경제지 통신원]
 "일본에 대한 나의 평가는 구조개혁의
 가속화 때문이다...그리고 JETRO, METI 기타
 핵심기관이 주도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순응성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 정치안정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리더쉽이 주요 기준이다 ."
 [교육훈련회사 경영진]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이며
 향후 몇 십년 동안 그러할 것이다 ."
 [아시아무역대표부]
 "한국의 노동법과 해외 영향력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은 실제 잠재력보다 훨씬
 더 낮은 매력을 갖게 한다 . 그러나
 일본보다는 낫다 . " [기업의 마케팅 간부]
 "투자잠재력의 측면에서 , 나는 근소한
 차이로 대만을 첫번째 한국을 두 번째로
 선택했다 . 두 국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이다 . " [미국
 중서부 경제학자]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 우리는 더
 나쁜 것도 봐왔다 . 그러나 한국시장은
 중국과 일본의 그들에 가려져 있다 . " [펀드
 매니저]

직접투자



응답자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입장을 밝힌 투자에 대한 선호를 가지며, 한국에 대한 투자에 약한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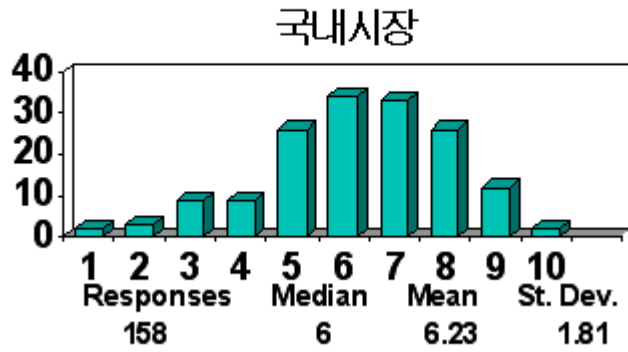
〈설문 3〉

투자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 (1-10의 급간으로 1은 전혀 매력없음, 10은 매우 매력적임을 나타냄)

응답자들은 한국투자에 대해 약한 긍정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 집합 자료는
 직접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약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두
 문항에서 모두 편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두
 문항을 비교할 때 직접투자에 대한 1-3의
 응답 (강한 부정)이 27%로 편향되어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8-10의 응답 (강한
 긍정)이 20%로 편향되어 있다.
 "한국경제가 지구경제에 편입되고 있고
 한국기업의 지명도가 높긴 하지만,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는 없는 한국인들의
 민감한 국민성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보다 매력적인
 하부구조를 가진 중국과 인도에
 설립하는 것이 더 쉽게 인식된다." [헤지펀드
 분석가]
 "중국과 한국은 훨씬 더 큰 수익율이
 가능한 미국보다 분명히 더 높은
 투자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산안정성 (위험 /보상)의 조건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투자자]
 "중국인 아시아의 성장, 무역 흐름, 기술
 이전, 소비자 이윤 증대를 주도할 것이며,
 지정학적 혼란을 막아낼 것이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문제들은 양안문제,
 북한, FSU, 이슬람 근본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투자은행 세계투자 담당]
 "일본에 대한 나의 평가는 구조개혁의

가속화 해군이나... 그리고 JEIRU, MITI 기타
 핵심기관이 주도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순응성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 정치안정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리더십이 주요 기준이다 ."
 [교육훈련회사 경영진]
 "한국의 노동법과 해외 영향력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은 실제 잠재력보다 훨씬
 더 낮은 매력을 갖게 한다 . 그러나
 일본보다는 낫다 ." [기업의 마케팅 간부]
 "투자잠재력의 측면에서 , 나는 근소한
 차이로 대만을 첫번째 한국을 두 번째로
 선택했다 . 두 국가가 가진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이다 ." [미국 중서부 경제학자]
 "해외자본과 기업의 강한 유입과 증가하는
 활동을 볼 때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매력은 분명하다 - 특히 자동차와
 은행부문에 있어서 ." [투자 분석가]
 "한국의 현재 정치상황은 우려스럽다 .
 하지만 정부와 기업공동체는 최근 5-7년
 동안 지역 경제 불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매우 신뢰할만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
 [전국무역협회 관리자]
 "나는 윤리적 투자 (사회적 견해를 참작한
 투자)를 중요시하며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 본국에
 가까울수록 모니터하기가 더 쉽다 ."
 [캐나다의 대학 교수]
 "한국정부는 보호주의 경향이 너무 강하며 ,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에서 모두 해외
 투자자를 위한 동등한 대우가 가능한지
 불확실하다 ." [워싱턴의 금융 컨설턴트]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강한 노조가 있고
 반미정서가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상당한
 크기의 시장 , 좋은 하부구조 , 숙련된
 노동력은 이점이다 ." [투자지 선정 컨설턴트]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보다 왕성한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 전망을 어렵게 한다 ."
 [기업변호사이며 전 다국적 기업 법률고문]
 "한국은 북한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시노석 것이다 .” [무역 중개인]
 “한국은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
 모두에 대한 문화적 , 정치적 , 제도적 장벽이
 높고 역동적이다 . 투명성과 거버넌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좋은 투자지로는
 거리가 있다 .” [기업 경영 컨설턴트 /리스트
 분석가]
 “한국은 여전히 자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지만 , 충분한 수익율과
 신뢰할만한 금융정보 를 얻기에는 은행과
 노조에 문제가 있다 .” [워싱턴 경제학자]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비용이 크고
 평가액은 너무 높다 . 이런 이유로 나는 낮은
 포트폴리오 투자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투자철수에 대한 위험부담을 고려한다 .”
 [개별 투자자]
 “한국의 정치경제상황은 여 전 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우리와 우리기업에게 높은 투자등급을 얻지
 못한다 .” [국제 컬렉션 컨설턴트]
 “북핵문제 해결전망의 결여는 한국에 대한
 단기투자를 어렵게 하며 부시의 재선은
 내년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재벌 의 과 도 한 영 향 력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결여 , 소액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의 미비는 한국
 사법부의 중상주의 정신과 결합되어 개별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약화시킨다 .”
 [미국 중서부 경제학자]
 “최근 정치불안정은 심히 우려스럽다 . 반면
 주요 기술 기업들은 기술 리더쉽에
 기반하여 수출 붐을 누리고 있다 .” [아시아
 소재 잡지 출판인]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실망을 표현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를 철회할 수
 있지만 직접 투자의 경우 투자철회가
 용이하지 않다 .” [회계사]
 “한국은 해외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팔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 그러나 SK나
 기타 사건은 외국인들이 자기자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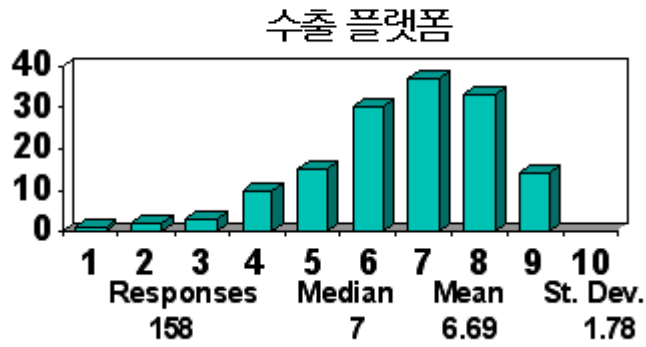
한국의 몇몇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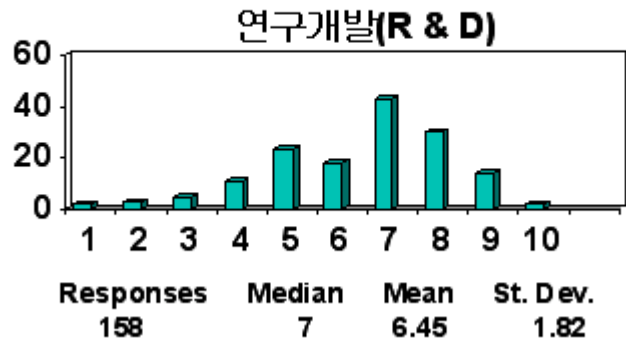
강점은 하위

전체 범주에서

순위와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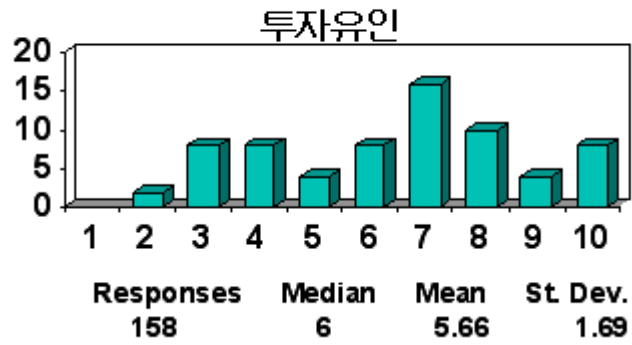
■ 비교할 점수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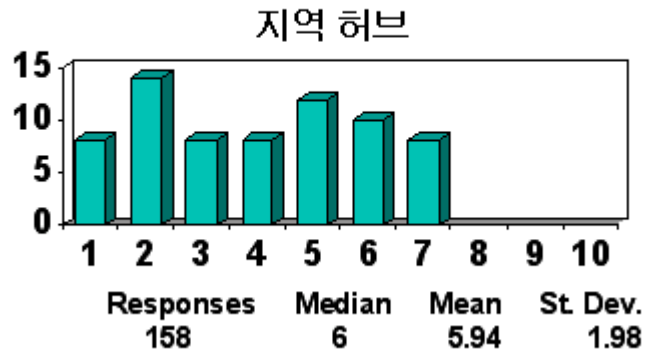
〈설문 4〉
 다음 분야에 대해 한국이 직접투자를 유인하거나 억제하는데 중요성을 갖는 강점을 표기해 주십시오 (1-10의 급간이며 1은 강한 부정적 영향, 10은 강한 긍정적 영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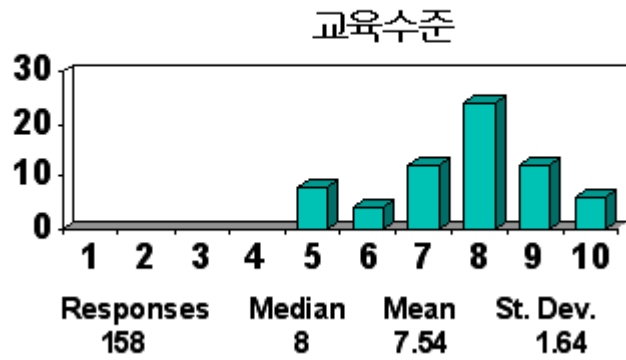
한국 센터로 한국에 문항들보다
 국내시장의 기능할 대한 훨씬
 매력과 수 있는 전반적인 높은
 수출 능력에 인식을 점수를
 플랫폼 대한 묻는 얻었다
 , R & D 평가는 앞선



교육이 투자유인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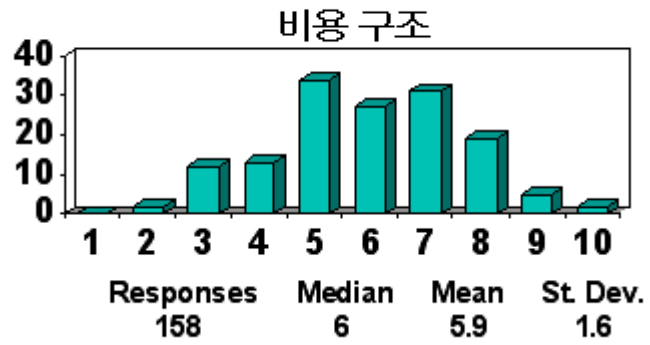
■ 얻은 능력은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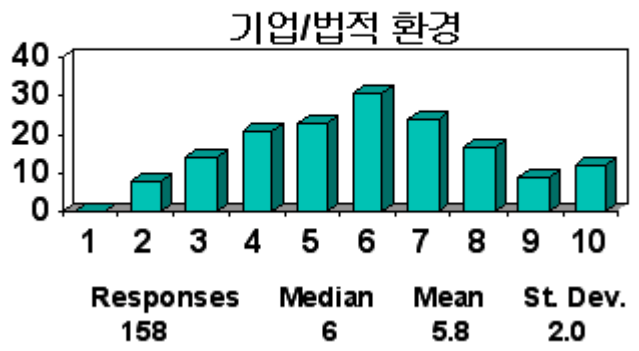
교육은 전체 설문문항 가운데 높은 점수를 얻은 문항군 기록했다. 투자유인과 지역허브 정책은 앞의 질문에 얻었지만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역허브 끌어들이려는 내용은 설문문항 가운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응답보다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한국이 주목해야 할

기능으로서의 전반적인 약간의 편차를 이 해외투자를 인식할 수 있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인식 사이에
 보여준다 .

■ 인식과
 간극을



“한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된, 매우 높은 교육수준과 건강한 노동윤리, 국가적 하부구조라는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중국, 인도와는 달리 만연한 권력의 불법행위도 없다. 한국의 경제성과는 훨씬 더 좋으며 더 발전되어 있지만, 이것을 투자유인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결여된 어떤 것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한국인들이 외국인 투자를 반기지 않으며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훨씬 덜 개방적이다.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태도에서 발생한다.” [헤지펀드 분석가]

■ 많은 응답자들은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능력보다 세부부문의 경쟁력이 더욱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2+2=3 인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려는 한국정부는 우리의 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과 협력을 제공했다. 한국의 잠재력을 현실화 시키는데 필요한 많은 관료적인 변화가 있었다.” [부동산 개발자]

“한국에 대한 나의 투자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한 반도 전체의 정치안정과 정치경제적 리더쉽의 일관성이 중요한 변수다.” [교육훈련 회사 경영진]

“정부규제와 기업하는데 어려운 곳으로 항상 한국을 유출입에 대한 제한은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이다.” [무역 중개인]

“한국의 법률체계는 행정법 위반에 대해 구속수감을 허용한다. 불분명한 규제, 행정법 입안의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을 넘어, 이 문제는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게 강한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 지배권 인수)

"한국기업환경은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거대 재벌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 그룹들은 여전히 보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외국인 주주들에게 경영개입을 허용하는데 저항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민족주의 경향은 한국을 다른 아시아 핵심국가들보다 국제적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전국경제지 기고가]

"문제는 한국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 위주의 해결책, 정부개입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탈규제는 표피적인 것일 뿐이다." [제조업 기업간부]

"근래의 파업일수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가 - 한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소멸하고 있는 이러한 파괴적인 행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또한 재벌 구조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비록, 구매하고 싶은 첨단제품을 재벌 기업들이 생산해 내고 있지만, 재벌의 과점체제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여건을 침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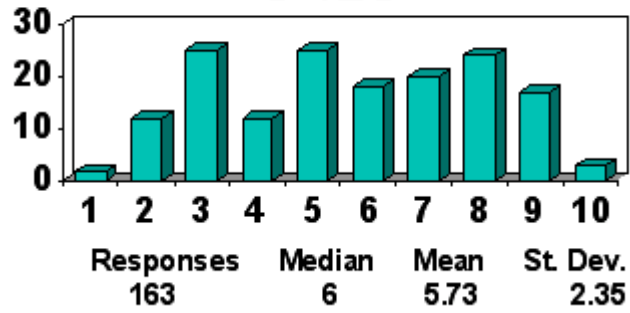
[전국경제일간지 기고가]
"부패는 분명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 만연한 상태다" [Military Analyst군사 분석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리적 인접성은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투자은행 분석가]

"거대재벌이 모든 산업을 통합하고 개별 기업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한국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개인 자본 투자자]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성공의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문화적인 장벽은 크며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을 어렵게 한다." [전국경제잡지 기고가]

"남북 통일이 가장 큰 변수이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홀로 생존해 나가는데 무척 어려울 것이며 수출 의존적 경제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회계사]

정치안정



다양한
어떤
응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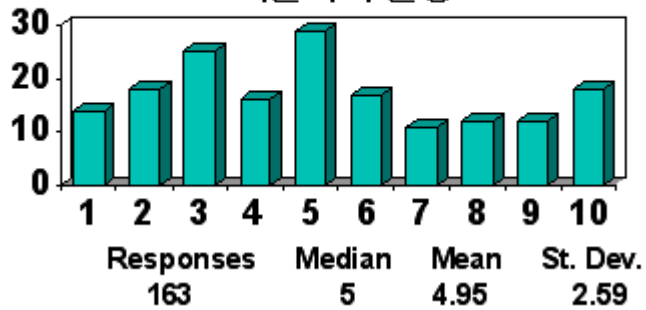
위험
영향을
극명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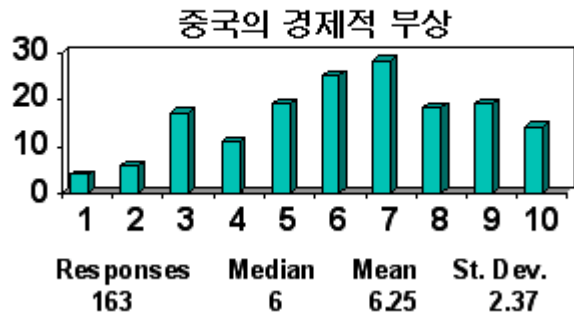
요인들이
미칠
것인가
대비되었다

한국

■
경제에
대한

북한과의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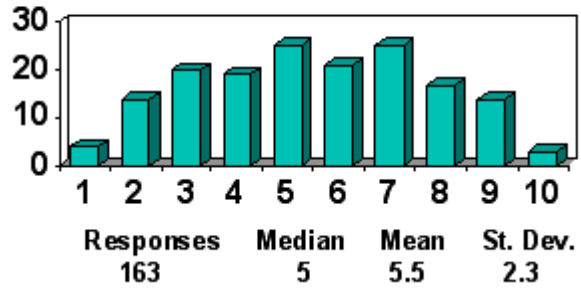




〈설문 5〉
 중단기적인 한국 경제에 주시시오 부정, 10은 매우 부정
 관점에서 미칠 (1-10의 급간을 가지며 1은 매우
 다음의 잠재력에 대해 평가해 긍정적
 요인들이 1은 매우 긍정적)

응답자들은 중국의 경제에 작용하리라 내다보았다
 요인으로, 북한과의 긴장은 부정적
 요인으로 경제에 작용하리라 내다보았다
 그러나, 설문 조사 전체 중에서, 이 설문
 대한 답변의 편차가 제일 크다

정부 리더쉽



항목에서
긍정적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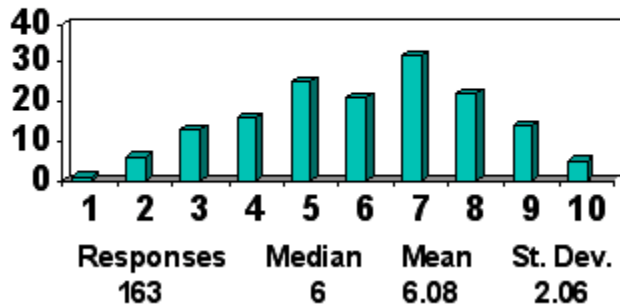
응답의
요인과

넓은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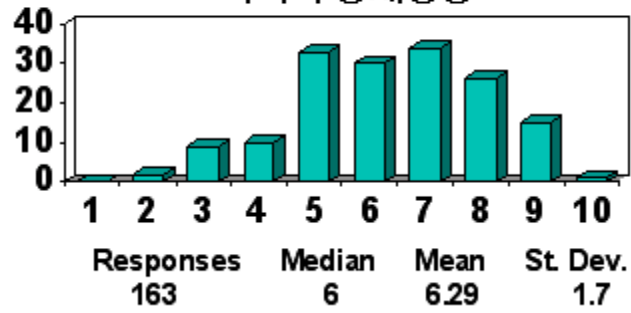
편차를
요인을

■ 전체
갖지만
구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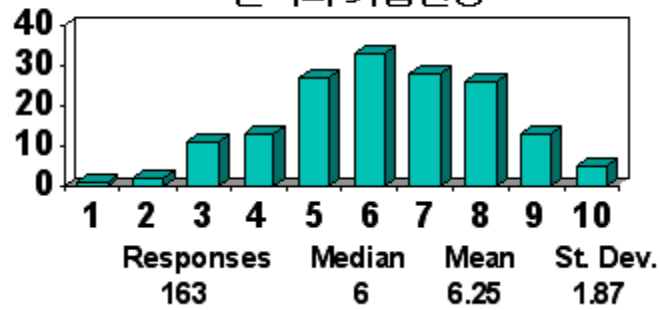
기업/규제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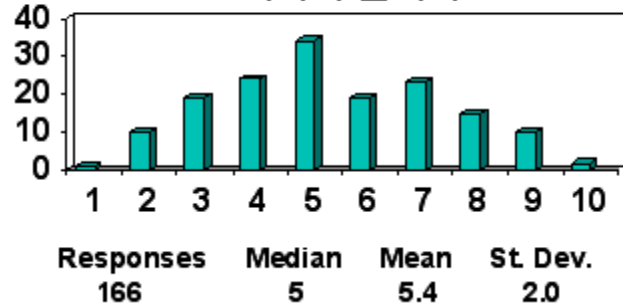
미국의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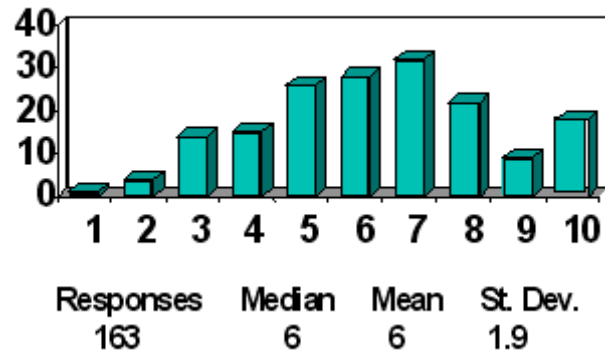
한국의 기업환경



사회적 분극화



소비자 수요/채무상황



흥미롭게도
취약성으로
수요 /채무상황
상대적인
"한국은
얻고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한국의

강점으로
지금까지
앞으로
유지하면서
바를
" [헤지펀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요인은
평가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일본의
미국보다는
중요하게
분석가)
재정경제부는

한국경제의
은 소비자
본 조사에서
순수익을
이해관계에는
중국이
고려해야 할
매우

보오두의역이머
대장성 , 재무성과 같은 11세를 뱅안나 . 걸
- 나는 이 분야를 책임졌던 미 정부 부서 하는 것이다
전직관료로서 재정경제부가 경제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알고 있다 .” [전직 미 정부
관료]

나는 학술회의 참석차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고 매우 직접적이며 연계된 기업활동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 한국어는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언어였다
한국은 인터넷망이 매우 발달해 있었지만
자기 충족적이었는데 언어가 그 한 이유로
보였다 . 일본은 한국에 비해 훨씬 더 외피로
둘러져 있는 느낌이었다 .” [인터넷 기반
컨설턴트]

“나는 한국시장의 크기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며 성장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 프랑스가 혼자
힘으로 존속할 수 있다면 한국도 그럴 수
있다 .” [전 미국 정부 관료]

“한국인들은 미국이 남북관계 난항의 주요
원인이며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남부관계는 진전될 수 있다는 것 , 북한이
한국을 향한 어떠한 공격계획도 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 정 /재계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해야만
한다 .” [싱크탱크 분석가]

“나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규제환경과 법적
환경에 대해 충분히 알지는 못한다 . 다만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허브로서 한국이
하부구조 (항구 , 철도 , 통신)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신흥민주주의 국가로 정치적 혼란이 문제가
된다 .” [전국무역연합 관리자]

“노조화는 거슬리는 문제다 .” [투자지 선정
컨설턴트]

“기업 지배구조는 가장 약한 고리다 .” [투자
펀드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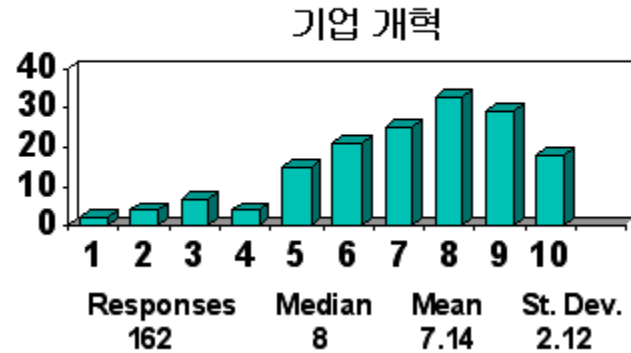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 , 미국의
이점 ,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 중국 시장 사회주의와

본층에서는
 "한국은
 나라지만
 기술환경이
 대역폭
 제공하는
 미숙한
 그로부터
 문제이기
 컨설턴트

)
 세계에서
 , 일본의
 기업간
 , 고부가가치
 것을 볼 때
 상태다 . 인터넷망이
 이윤이
 때문에
)

. (인실업
 경쟁인)
 가장 인터넷망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솔루션을 위한
 한국의 기술은
 잘 발달한
 것은
 필요하다 ."
 [기술

발달한
 낮은
 낮은
 유인을
 아직
 것과
 다른
 ."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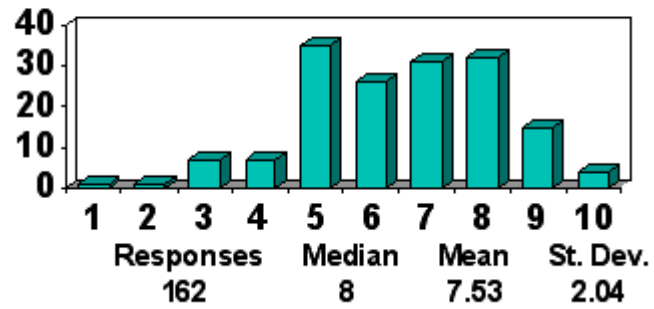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우선순위에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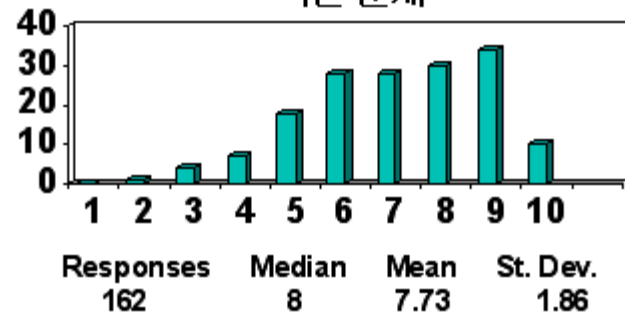
대한
 한국정부의
 분명한

정 책
 인 식 을

정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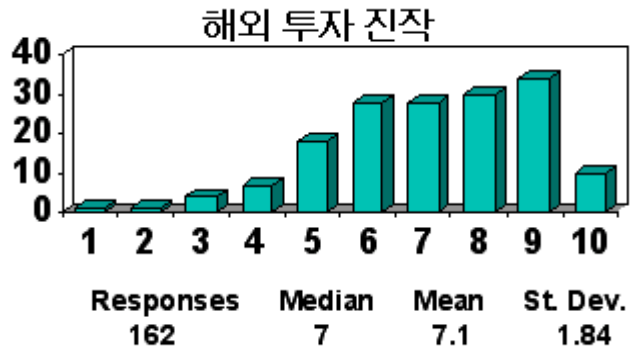
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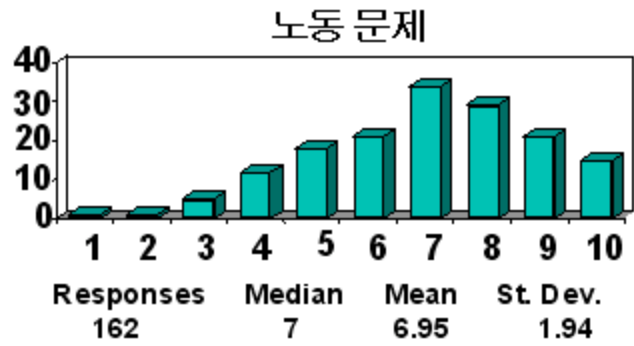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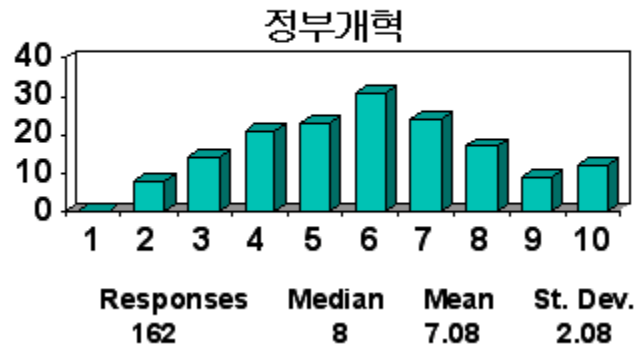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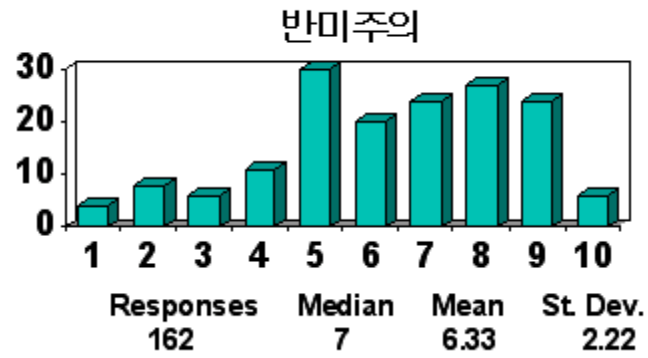
〈설문 6〉

당신은 다음 이슈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우선 순위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1-10의 급간으로 답하고, 1은 가장 낮고 10은 가장 높은 우선성임)

다른 질문들과 비교할 때, 응답자들은 본 문항에 상대적으로 낮은 편차를 보이며 강한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과 거래하고 정치안정을 이룩할 필요성이 가장 상위의 우선순위를 기록했다.



반미주의가 대해서는 엇갈린 우려할 인식을 정도인지에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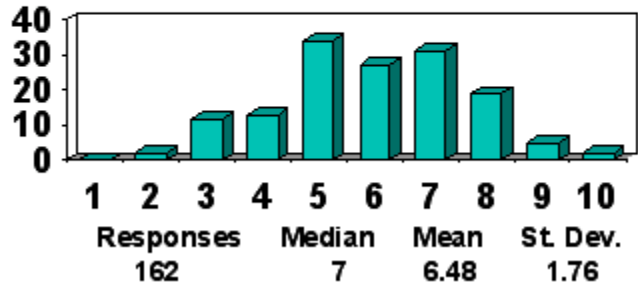
외국인의

억압투사 문제들을
 응답자들이 가지고
 정부개혁과 다양한

해결해야 상대적으로
 있었다 . 반면 ,
 기업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이 표출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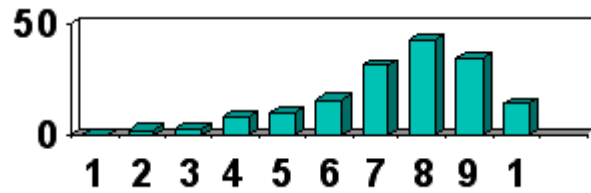
국내 지점에서는
 유사한 의견을
 추가적인
 대해서는

사회 문제



"한국은 사회 , 경제 , 외교정책 전반을
 새로이 확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
 하지만 누구도 지속 가능한 변화를 낳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집권할 수 없다 ."
 [투자은행 분석가]
 "정부가 시장 지배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정부와
 5대 재벌 기업의 관계는 범죄관계에 가깝다 ."
 [아시아 무역대표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훌륭한
 정치 , 경제적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수]
 "한국정부는 여전히 국내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조사받고 있다 . 나는
 성실히 납세를 했으나 어느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청구서를 받아 든 한 국제
 기업을 안다 . 한편 자동차회사 2개가 외국인
 소유가 되었고 은행은 외국기업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어왔다 " [전국 경제잡지
 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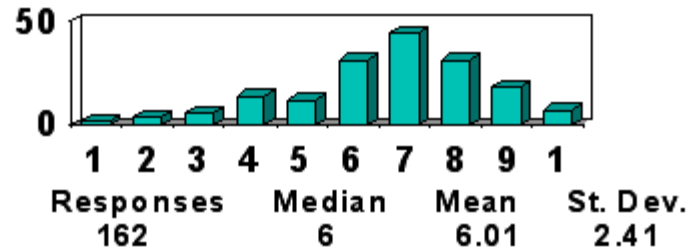
북한의 안보위협



Responses	Median	Mean	St. Dev.
162	7	6.83	2.18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편차를 보였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구적 안보위협



〈설문 7〉
 안보위협으로 북한과의 긴장요인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합니까 - (1-10)
 급간에 표기해 주시고, 1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10은 극도로 심각하다는
 평가임)

응답자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답변은 편차가 매우 컸다.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5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매우 많았고, 몇몇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남북관계의 긴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뉴스에서 비중이 매우 크며 그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된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능한가 -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문제라는 사실이다."
 (기술 투자자)

"인접성은 북한을 더 큰 문제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오랜 기간

영국은 더 나은 것일 때 사람들이
지금 더 우려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
[전국 경제잡지 기고가]

"우리 고객들은 북한과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국과의 거래에 편안함을 느낀다 ."
[기술 컨설턴트]
"북한의 태도는 순수하게 방어적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세계 테러리스트 운동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
[아시아 소재 기업 고문]

"북한문제를 과대포장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
[헤지펀드 분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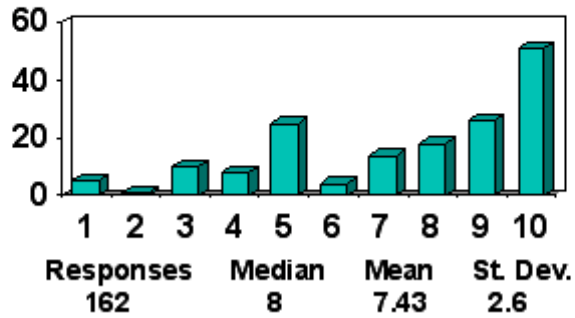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볼 때 나는 현 정세가 유지되는 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특히 자문]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나 요구에 있어 보다 유연해야 한다 . 그러나 북한 또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위 패턴이 필요하다 ."
[정치학 교수]

"북한은 개입정책을 통해 고립될 수 있다 .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협력적인 조건에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붕괴될 수도 있다 ."
[마케팅 회사 경영진]

"스탈린주의 타입의 공산주의자들과 유연한 관계를 갖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이다 ."
[교수]

"북한이 지하에서 고농축 우라늄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나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감시 장치가 없다 .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보다 북한의 핵 개발을 방지하고 핵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고집이 더 큰 위협일 수 있다 ."
[아시아 소재 저널리스트]

"북한은 일본 , 한국 , 대만 그리고 중국에 대한 위협이다 ."
[기술 경영진]
"솔직히 한국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나는 북한문제를 한국이 혼자 알아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
[전국 경제 일간지 기고가]



편차는 크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북봉쇄정책보다는 개입정책을 더 선호했다.

<설문 8>
 당신은 현대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대결 /봉쇄 정책과 외교 /개입 정책 중
 어느 방식으로 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1-10급간으로 응답하시고 1은
 전자에 대한 강한 선호, 10은 후자에 대한
 강한 선호임)

확실히 엇갈린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외교적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전체적으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선호가 강했지만 상당한
 비율의 소수의견은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두 극단적 견해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려는
 시각을 보였다.
 "대결과 유화정책만이 전부는 아니다. 두
 가지 방안의 섬세한 혼합도 가능할 것이다."

[소사]
"실제로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 북한과 접촉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북한에 대한 정보부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 [전 동유럽
외교부 장관]

"이러한 이분법은 비 현실 적 이 다
대북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개입적 접근
속에서 일정 정도의 대립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 [워싱턴 금융 컨설턴트]

"다자주의 , 외교 , 정치경제적 압박이 힘의
사용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낼 것이다 .
이라크를 보라 .." [주요 투자은행 세계
전략담당자]

"대략 과거 1년 반 동안 , 외교와 개입정책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 했고
타국과의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 이라크와의 비밀무기 거래 , 사담
후세인에 대한 은신처 제공 제의 , 국제적
의무에 대한 의도적 무시는 정책실패의
일부 사례일 뿐이다 .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외교와 개입정책이 선호되고 있지만 ,
이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핵 잠재력은 더욱
커지며 인근국가와 지구적 수준의 안정에
위협정도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

[교육훈련 회사 경영진]
"북한 주민들은 무기를 먹을 수 없으며...
무기구축에 그렇게 많은 돈을 소비함으로써
계속해서 인민을 기아상태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 따라서 북한정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나 자신들의 미래를
협상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아시아 무역대표부]

"나는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운송체제 폭발과 같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는 없다 . 무력위협상황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의료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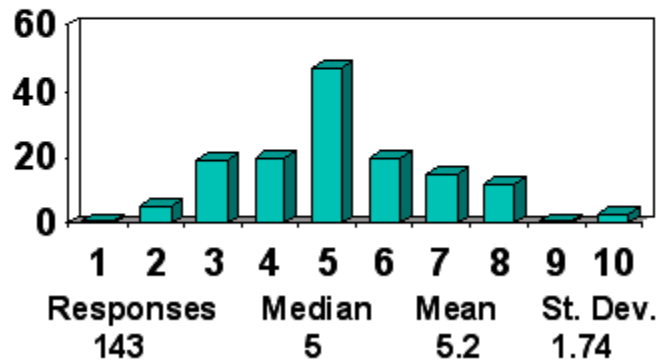
"김정일이 미친 짓에 돈을 대기 위해
미국을 협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려면
봉쇄해야 한다 ." [기술 경영진]

나옴이
 해야만
 "북한과의
 외에
 봉쇄정책은
 효과적인
 "외교 /개입정책과
 균형이
 필수적이다
 시장적
 대한
 협력을
 위협과
 경제잡지
 "외교적인
 벌어지는
 없다 .
 밝혀지지
 있다고
 약속도
 저널리스트
 "내게
 워싱턴에서
 있는
 나올
 "외교 /개입
 상대해서는
 중국의
 러시아까지도
 해결에
 "북한의
 것이며
 곧바로
 일본은
 수 있는
 있다 .
 없이는
 그리고
 일본의
 고집불통의
 북한과
 행정부는

글 썼듯이
 알아듣는다
 전쟁이
 실제로
 외교
 필요 하며
 . 또한
 경제개혁을
 안전보장과
 연계해야
 수사에
 기고가
 방법으로는
 고농축
 북한은
 않는
 알려져
 믿을
 문제해결의
 다른
 지위에
 것이다 .
 "외교 /개입
 정책은
 한계를
 참여와
 , 미국
 , 조율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은
 대만의
 대륙간
 정교한
 이런
 식량
 등
 중국은
 핵무장을
 고객들
 양자간
 핵
 위기의

증언하시겠습니까
 !!!" (역사학
 아니라면
 다른
 정책
 수단일
 대결 /봉쇄정책
 다 자간
 무기
 고무해야
 무기
 한다 .
 굴복해서는
 북한
 북한의
 개발을
 개가
 길이의
 있다 .
 수
 없다 .
 단서가
 있다면
 외교정책결정을
 지금보다는
 북한과
 같은
 수밖에
 , 일본
 , 중국
 , 심지어
 북한
 문제
 "싱크탱크
 분석가
)
 핵무장을
 야기할
) ,
 뒤따를
 것이다 .
 쉽게
 전환될
 능력을
 보유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
 수
 없다 .
 코앞에서
 있는
 이
 원하지
 않는다
 이
 적극
 상대해야
 한다 .
 거부하는
 무시
 가장
 심각한

영애풀이나 , (나기병 성경인)
"한국에 대한 메모 : 누가 당신들의
친구인지 , 적인지를 분명히 해라 . 그리고
한국에 관한 당신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라 ."
(전국경제일간지 기고가)
"북핵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 김정일이
합리적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나는 결코 확신할 수가 없다 ."
(경제학 교수)



도 통일은 거대한 장애물이지만 "한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 그 과정에서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는데 중국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펀드
 매니저)

■ 본 조사는 선거이전에 수행되었지만
 응답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설문 9〉

최근 정치발전과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과정이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당신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10 급간으로 응답해 주시고, 1은 심각한
 신뢰손상, 10은 높은 신뢰상승임)

본 조사의 다른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정치안정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응답했지만, 노 대통령의 탄핵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주
 낮은 편차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견해를 보여
 왔선 응답과 상반된 경향을 나타냈다.
 "나는 구성원들이 훌륭하고 신중한
 사람들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으며, 일반 여론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더 신뢰한다." [특허
 자문]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
 "최종결과는 역설적이게도 개방과 개혁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자]
 "탄핵사유가 너무 약하다. 대규모
 사법개혁과 정부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분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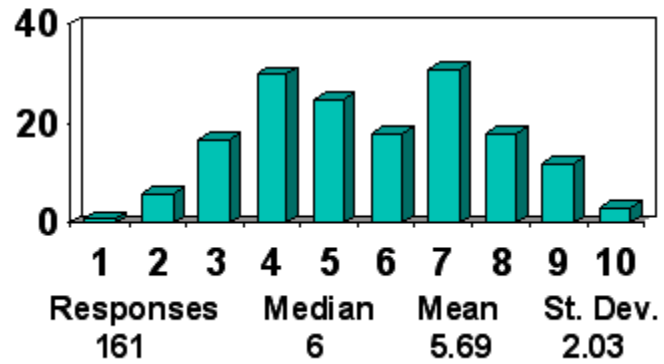
"탄핵소추를 포함한 최근 정치경향을 보면
 당파정치에 매몰되어 정부가 표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국
 경제잡지 기고가]

"한국은 과거에도 항상 정치불안정을
 극복해 왔으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하지만 이 느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5"순위를 주었다." [아시아 소재
 저널리스트]

"최근 일련의 사건은 한국 정치인과 정당의
 성숙함에 대해 큰 신뢰를 갖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민주주의
 근본적 성격을 훼손하거나 장기적으로
 경제성과를 위협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
 [경제학자]

나는 백악기 백악기 수사들에게 내내 내주군
 비난을 하는 국부적인 정치사건으로
 생각했고, 실제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고 이번 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 지지정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 유권자들은 투표로 탄핵소추세력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경제
 일간지 기고가]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클린턴의
 화이트워터 사건처럼 정파적 행위로
 보이지만, 이면의 불안정성은 보다
 근본적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건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탄핵은 서로 다른 주장이라기 보다
 차라리 전투에 가깝다. 잇따른 스캔들이
 있었던 탄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해외에 안정감을 주기 어렵다. " [전국
 경제잡지 기고가]

"이것은 완전히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이 사건은 정치계급이
 자신들을 제외한 세계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무책임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구 정치계급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 또한 본
 사건은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자와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시급한
 경제적 필요보다 국내정치문제가 더
 우선하는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
 [헤지펀드 분석가]



탄핵 에피소드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 의미가 있다면 작동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 [전

미국 정부 관료)
 ■ 여전히 의견은 갈렸지만 , 한국이 미국과 보다 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믿음이 약간 더 많았다 .

〈설문 10〉

당신은 한 -미 양자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 (1-10 급간으로 응답해 주시고 , 1은 훨씬 더 약하게 될 것이다 , 10은 훨씬 강하게 될 것이다 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4와 7을 선택하였다 .
 이는 응답자들이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반면 비교적 적은 수의 응답자들이 극단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 그러나 서면과 구두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 응답자들이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 , 미 양국의 실천이 중요하다 ." [전 동유럽 외교부 장관]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관점을 택한다면 관계는 훨씬 강화 될 것이다 ." [워싱턴 분석가]
 "양국관계는 앞으로 몇 달간 정치과정에 달려 있다 ." [특허 자문]
 "미국 정부의 이해는 한국과 그 지역 전체의 평화다 .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동북아 , 중국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기 를 바라지 않는다 ." [전국무역협회 간부]
 "미국정책은 앞으로도 한미 관계를 핵심으로 접근할 것이다 ." [주요 투자은행 세계전략담당]
 "한국은 점점 더 미국과 불편해질 것이다 ."

(주사시 인성 인문사)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양국관계는 더 나아질 것이다 . 그러나 그 작업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정부가 진행해야만 한다 ." [교수]

"현재 한국에 대한 언론보도가 정확하다면 나는 "1"을 선택할 것이다 . 하지만 본능적인 느낌에 따라 나는 한국이 한미안보동맹관계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그러나 "4"이상의 강한 전망을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 [아시아 소재 저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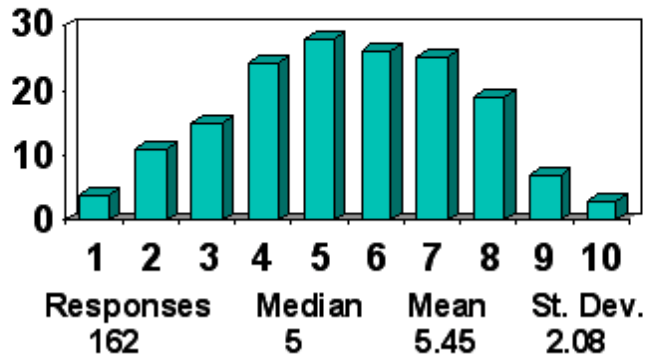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이 덜 호전적이고 일방적이지 않다면 미국의 전통적 우방 /동맹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부시 행정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국 내 반미주의가 선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

[경제학자]
"미국을 한국의 안보 수호자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차로 인해 양국 관계는 분명 약화될 것이다 . 중국은 강대국이며 미국은 한국에 견제수단을 제공할것이지만 , 한국이 통일될 경우 이해관계는 상당히 분기할 것이며 양 국 모두에게 동맹의 유인은 약화될 것이다 ." [헤지펀드 분석가]

"미군이 떠난다면 한국은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 하지만 결국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과 경제교류를 넓히게 되고 서울 주문 미군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미국이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한다 ." [회계사]

"나는 우리들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미국은 미국의 의무를 다했고 , 지금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는 군사적인 요인이 아니라 훈련비용이 미국보다 싸다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 한미 양국은 모두 승자이며 , 미국인들은 한국전에서 미국이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두더에게 긋글 있나 생각과 이 세
 결별해야만 한다 ." [전 미 정부 관료]
 "한국인들은 미군이 떠나길 원하지만 정작
 미국이 철수를 위협하면 모두 친미주의자가
 된다 . 한국인들이 미국을 좋아하든 아니든
 그들은 24/7의 마인드 (24시간 일주일 내내
 의존하는) 를 바꿀 수 없다 . 그들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 나는 한국의 분열증적
 분위기에서 당장 손을 떼고 싶다 .
 또한 다른 수준에서 나는 지난 월드컵 때
 미국팀에 대한 한국 축구 팬들의 태도에
 극도로 화가 났다 .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질의 축구팬처럼 행동했으며 미국팀의
 집중을 방해했다 . 나는 한국 이외의 모든
 훌륭한 축구팀을 존경하지만 팬들의 행동
 때문에 한국팀만은 패배하기를 바랬다 .
 반면 한국이 내게 주는 이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 여성들이 미스 유니버스 왕관을 쓸 수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는 것이다 .
 하지만 지금까지 대회에서 누구도 왕관을
 쓰지 못했다 . 이건희 스타일의 후원자를
 가진 한국 여성들은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 작년에 미스 유니 버스
 대회에서 한국대표는 왕관을 도둑맞았는데 ,
 미스 체코나 남아공처럼 못생긴 여성이
 왕관을 쓴 반면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던
 것이다 ." [전국 경제일간지 기고가]
 "한미관계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더 강고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 [경제학 교수]



한국이
있을
대부분

아시아의
것인가에
판단을

"동적
대해
유보했다

허브 "가
응답자들은
될 수



<설문 11>

당신은 아시아 지역의 "동적 허브 "가
되려는 한국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10의 급간으로 응답해
주시고 1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 10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이
것인가에
분포를

아시아의
관한
보였다

"동적
의견은
대부분의

허브 "가
상대적으로
응답은

될 수 있을
넓은
4-7 사이에

입증되어 , 이 일어난 것
 응답자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불확실한
 전망을 내보였고 또 다른 응답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존재는 한국이 허브로의 발달을
 용이하게 한다 . 아마도 남북 통일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 (아시아 소재
 저널리스트)
 "동적 허브 개념은 잘못된 인식이다 .
 싱가포르와 홍콩이 그 기능을 해 왔지만
 한국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않는다 .
 여행자들은 중국에 직접 가기를 원하지
 한국이나 일본 경유를 원하지 않는다 .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
 본사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더욱이 그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의 전통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 (기술
 컨설턴트)
 "너무 비싼 생활비와 경제성장 곡선의
 수익을 감소라는 조건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 컨설턴트)
 "한국은 북아시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좋은
 입지를 제공하며 많은 북미 기업들은 이
 북아시아 시장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 (기술
 투자자)
 "허브는 안전지대여야 하는데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 또한
 언어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 (기업 경영진)
 "한국인들은 자본주의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좋은 기업 파트너다 . 그들은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나는 허브 개념이 잘
 작동하리라고 본다 . 또한 한국은 잘
 허브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의료 컨설턴트)
 "한국이 동적 허브가 되려면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
 지금은 유연성을 방해하는 너무 많은
 정치적 힘들이 존재한다 : 공장폐쇄를 할 수
 없고 노동자 해고도 자유롭지 않다 .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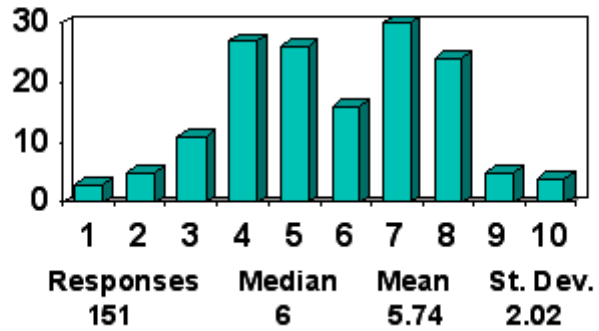
시력판영의 "한국의 위치가 허브로서 좋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공급자가
 될 수 있으며 중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베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부 연안
 경제학자]
 "핵심은 인종적 배타성과 정실주의에서
 벗어나 개방사회로 전환하는 문제다." [기업
 변호사]
 "한국이 지역허브가 되려면 민족주의적
 태도를 지금보다 훨씬 약화시켜야 한다
 또한 외국어 실력도 갖추어야 한다." [포춘지
 선정 50대 기업 최고 경영진]
 "중국은 주변 다른 국가들이 모두 그를
 중심으로 배열되어야 하는 아시아 북부의
 경제축이다 . 하기에 나는 한국이 뛰어난
 방식으로 "허브가 되기 "위한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예견하기가
 어렵다 ." [주요 투자은행 세계전략 담당자]
 "한국은 아시아 기업 자본들에게 제공할
 접근성 , 다언어성 , 거대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투자지 선정 전문가]
 "한국의 허브 가능성은 북 한 문제의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에 달려있다 ."
 [교육훈련회사 간부]
 "한국이 홍콩 , 상하이 , 싱가포르 , 대만과
 경쟁하는 것은 긴 여정이다 ." [마케팅 산업
 경영진]
 "지역허브가 되려면 한국은 기업 관행에
 보다 개방적이 되어야 하며 해외
 행위자들에게 보다 우호적이어야 한다 ."
 [전국 경제잡지 기고가]
 "한국이 허브가 되려면 홍콩 , 대만 , 동경과
 경쟁을 해야만 하고 또한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더욱이 북한은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신
 컨설턴트]
 "완전한 경제구조개혁의 결여 , 예컨대
 재벌과 구시대적 노동시장 구조 , 낡은
 정서는 한국정부의 의식적 노력을 상쇄하는
 요인이다 ." [미국 중서부 소재 경제학자]
 "한국은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될

있어서만
 중국이나
 [교수]
 "지리적
 한국은
 떨어져
 사용하는
 혁신적이고
 가격으로
 삼성만이
 생산품목에서도
 시도가
 한국은
 광둥
 것은
 더
 개발된다면
 적절할
 [전국경제일간지
 "한국의
 개척자로서
 아시아
 중국과의
 [경제학
 "허브로
 있다
 한국인들은
 개방적이
 때문이다

영인사노서
 일본에
 버금가는
 요인은
 다른
 있고
 국가는
 효율적이며
 질
 아니라
 실패하리라고
 허브가
 제품을
 어리석으며
 . 만약
 허브가
 수도
 산업기반은
 좋은
 허브가
 경쟁을
 교수
 발전하는
 문화적
 과거
 되었지만
 . [잡지

또는
 수준은
 한국에
 아시아
 그
 없다
 .
 효율적이며
 좋은
 생산품을
 의류
 그러하기
 되려나
 되려는
 있다고
 기고가
 훌륭하며
 전망을
 되려는
 피할
 것은
 이슈가
 그들의
 싱가포르만큼은
 편집자

조미사노서
 아니다
 ."
 유리하지
 않다
 .
 신흥개발국과
 멀리
 한국어를
 하지만
 한국인들은
 경쟁력
 있는
 만든다
 .
 비단
 종이
 ,
 다른
 때문에
 한국의
 .
 왜
 - 인도네시아나
 보내는
 것이
 북부
 오지가
 한국의
 전략은
 생각한 다
 ."
 중국시장의
 있지만
 ,
 장기비전을
 가진
 것이다
 ."
 문제의
 소지가
 중요하다
 .
 가장
 훨씬
 더
 아니기



잠재적 한국기업의 유사한 유보적 태도를 비즈니스 매력에 관해 파트너로서 응답자들은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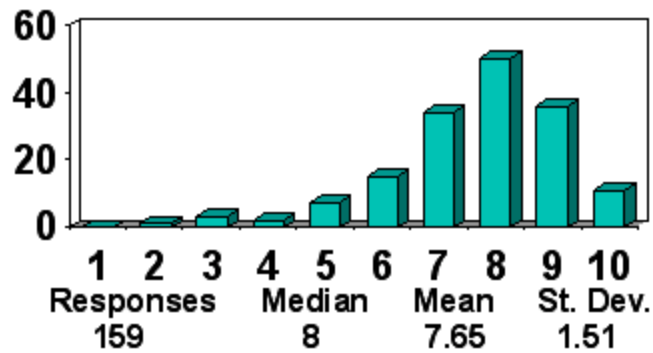
<설문 12>
 비즈니스 매력에 급간으로 없다, 10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파트너로서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1-10)
 한국기업의 주심시오 (1-10)

앞의 한미관계에 대한 설문 응답에서처럼 "M" 스타일의 응답분포가 나타났는데, 한 집단은 약한 긍정, 다른 집단은 약한 부정의 의견을 보인 반면, 극단적인 견해는 거의 없었고 중립적인 "5"값은 낮은 응답을 기록했다.

“문제는 개별기업이며 일부는 매우 좋은 파트너인 반면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분석가)
 “한국 기업들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 특히 해외 파트너와 일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정치분야과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의해 잘 경영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자문)
 “한국에서 직접 경험은 없지만 , 나의 피상적 인식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좋은 파트너라는 것이다 . 다만 임원 검직과 이면계약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국무역협회 간부)
 “일본기업의 경우 일단 관계를 맺고 나면 과정에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신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 당신은 파트너를 얻는 것이고 혼자 빈털터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같은 얘기를 접하지 못했다 . 이것은 나의 무지 때문일 수도 있다.”
 (워싱턴 컨설턴트)

“현재 구조와 문화는 한국이태평양 이외 지역과 협력하는데 어려움을 낳는다.”
 (투자은행 분석가)
 “(한국기업과는) 상호 이익이 되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 (포춘지선정 50대기업 최고경영진)
 “제휴관계는 필수적이며 지방 기업들은 열의에 넘쳐있지는 않지만 의지는 있다 . 문제는 제휴가 활성화되려면 극복해야 할 사회적 , 문화적 , 인지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부동산 개발업자)
 “기업지배구조가 문제인데 , 특히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다 .” (기업변호사 , 전 다국적기업 연구소 자문)
 “나는 한국기업과 멋진 경험을 가진 바 있다 .” (의료 컨설턴트)

으느면 될까 - 적신아기 어답나 . 좋은
 한국인이 되는 것 과 광범위한 심성을 국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 갖는
 것 사이에 갈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기업 경영진]
 "내가 한국에서 일할 때 내 부서의 모든
 사람은 부서장과 동일지역 출신이었다
 내가 타 지역 출신자들의 고용을 요구했을
 때 그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 한국인들이
 자신의 지역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그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자국의 타
 지역 사람들보다 외국인이 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회계사]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경직성에서 많이 벗어났다 . 보다
 유연해졌고 이는 기술혁신에 유리한
 조건이다 . 하지만 여전히 같 길이 멀다 ."
 [기술 컨설턴트]
 "관계 형성은 서로간의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다 . 편안한 관계의 넓은
 네트워크로 인식되는 재벌의 존재는 우려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 한국 기업가들이
 그러한 한계를 극복 하 기 에 는



시간이 필요하다 ." [전 미 행정부 관료]
 ■ 한국제품의 질적향상을 평가함에

〈설문 13〉
 소비자 입장에서 5년 전과 비교할 때 한국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10급간으로 대답해 주시고, 1은 가치가 훨씬 낮아졌다, 10은 훨씬 더 높아졌다 임)

본 문항은 본 조사의 설문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얻었다. 응답자들은 5년 전에 비해 현재 한국 제품이 훨씬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5 이상의 값을 주었다. 게다가 본 문항은 전체 조사에서 가장 낮은 편차를 보였다.

“제품의 브랜드화는 상당히 보편화되었으며, 질적 우수성을 보증해준다.” [투자은행 분석가]

“특히 자동차 산업 부문에 있어 상당한 성장이 있었다.” [아시아 무역 대표부]

“특히 한국산 전자제품은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 [교수]

“한국은 단순한 규격화된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하이테크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적 창조자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전국 경제잡지 기고자]

“한국산 자동차, 휴대폰, 전자제품에 대한 평판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기업

번오사)
 "제품의 질은 높아졌지만 고비용으로 인해
 가치는 더 낮아졌다." (마케팅 컨설턴트)
 "나는 한국 제품을 매우 좋아하며
 정기적으로 구매한다 . Made in Korea 는 제품의
 질적 우수성을 의미하며 ,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의류 , 종이 제품 , 가구 , 그 외의
 미국으로 수출되는 광범위한 제품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다른 대부분의
 수출품보다도 모두 품질이 뛰어나다 ." (전국
 경제일간지 기고가)
 "이미 5년 전에 한국제품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했다 . 그러나 나는 특히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고려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 (경제학 교수)
 "일부 삼성제품을 제외하면 시장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제품을 의식적으로
 구매하지는 않는다 ." (잡지 편집인)
 "한국제품의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 .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한국인의
 중심지인 이곳 LA에서도 한국 문화는 주류
 흐름에 녹아 들지 못하고 있다 ." (투자
 컨설턴트)
 "한국은 스스로의 힘을 구축해야만 한다 .
 확실히 한국 자동차 산업은 매우 강해졌고
 전자산업의 중요성도 커졌으며 삼성이 이를
 주도해 왔다 . 한국기업은 기술 선도력을
 얻었지만 노동비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 일본은 15년
 전에 그 단계를 통과했다 . 일본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을 시도했고 자국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등 자기충족적인 방식을
 추구했다 . 그러나 결국 혼자 힘으로 모든
 기술영역을 개척할 수 없으며 최선을 연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러한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대개 대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
 한국의 문제 중 하나는 행위자가

TT인기에
 없다는 점이다 . 한국 기업들은 외국기업과
 제휴할 의지가 있는가 -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국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 국제
 비즈니스는 더 많은 협력과 제휴를
 의미한다 . 활발한 국제무역을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를 추진할 선구자가
 필수적이다 . " (기술 컨설턴트)
 "일본의 소비재는 최상품이며 매우
 아름답다 . 일본의 만화와 10대 여학생들의
 문화는 이 곳에 많이 전파되어 , 일본에
 역동적인 문화가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하지만 한국의 수출품에는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가 없다 . 한국인들은 좋은
 자동차와 전자 제품을 만들지만 , 그러한
 것들은 엔지니어를 위한 , 엔지니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 실질적
 가치와 이윤창출을 야기할 마법의 손길이
 결여되어 있다 . 예를 들어 , 애플사는 한국
 기업들을 통해 차세대 I-pod (휴대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응용제품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 한국 기업들에게 그것의
 디자인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 " (인터넷
 컨설턴트)

<설문 14>
 당신은 한국경제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 질문에 대해서는 90명이 응답을 했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한국의 높은
 교육능력을 강조했다 . 또한 다수는
 한국인들의 도전의식 , 강한 노동윤리 ,
 제조업 능력 , 시장적응속도와 단 일
 국민성을 들었다 .

<설문 15>
 당신은 한국경제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 질문에 94명이 응답을 했으며 ,
 약점으로는 정치 불안정 , 부패 , 정실주의 ,
 노사문제 , 북한문제 , 외국에 대한 배타성 ,
 고비용 구조 ,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응답이 빈도가 높았다 .

<설문 16>
 한국 기업들이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핵심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6명이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 .
 보다 심도 있는 경제개혁과 기업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 비용에 기반한 제조업
 생산구조를 넘어서야 하고 ,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위해 한국경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특히 "동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기업과 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하며 보다 중요하게 세계경제에
 핵심적인 요소인 협력 , 제휴관계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